

정책연구 2002-12

한·일해협 연안 지역간
국제관광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2002. 12

제주발전연구원

발 간 사

지식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구호 속에 지방의 세계화를 의미하는 ‘세방화(glocalization)’ 현상이 국내외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세방화 경향은 지방자치단체에 국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국제화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한 국제교류는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친선도모를 위한 자매결연에 편중되어 왔고, 단체장의 성과과시를 위한 전시성의 개재와 자치단체별 교류국가의 중복성 등이 비판적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비록 지방정부간의 교류가 단순한 우호친선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직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정부간의 교류는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가 1992년부터 한국의 남해안 1시3도(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와 일본의 큐슈북부 4현(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야마구치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매년 1회씩 모여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교류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일해협권 연안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국제관광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역사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역의 경험과 문제와 지혜를 상호간에 공유하고 나눔으로서 상생과 공존의 운명공동체로서 상호 발전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특히, 한일해협 연안 지역간 관광부문의 협력체제 구축은 역내 공동번영을 위하여 정부간의 협력보다는 관광상품의 공동개발, 관광관련 종사자의 상호교환 교육 프로그램

램 개발, 항공사간의 업무교류 증진 등 민간부문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한일해협 연안 지역간 국제관광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 국제관광교류협력에 대한 지방정부, 민간 및 학계의 정책개발과 지속적인 연구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2. 12

濟州發展研究院

院長 高 忠 錫

목 차

I.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및 범위	3
4. 연구 구성	3
II. 이론 연구	5
1. 국제관광 교류협력의 개념	5
2. 국제관광 교류협력의 필요성	7
3. 국제관광 교류협력 유형 및 범위	10
4. 국제관광 교류협력의 성공조건	15
5. 국제관광 교류협력의 협력주체	17
6. 공동 협력사업의 단계적 추진	18
7. 국제관광 교류협력의 한계	20
III. 다자간 자치단체 교류협의체 운영 현황	22
1. 동북아자치단체연합	22
2. 동북아지역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24
3. 동아시아(환동해)도시 시장회의	29
4. 한일해협권 연안 지역 국제교류	31
5. ITOP 포럼	40
6. 시사점	42

IV. 제주지역의 국제교류 현황	44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	44
2. 대학·민간·시민단체의 국제교류 현황	46
3. 남북교류 현황	47
4. 국제교류협력 관련 조례 제정 현황	47
5. 국제교류의 문제점	49
V. 국제관광교류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제언	50
1. 기본 방향	50
2. 국제관광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52
3. 정책 제언	64
VI. 결 론	71
참고문헌	73

표목차

<표 1> 국제교류의 목적	8
<표 2> 지방정부간 국제관광협력 분야별 주요협력 내용	14
<표 3>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회원 현황	23
<표 4> 동북아지역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지방정부의 참여 동기	25
<표 5> 동북아지역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주요 의제	26
<표 6>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 회의개최 경과	31
<표 7> 한일해협 연안 공동 교류사업 추진상황	32
<표 8>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지사 회의 공동성명 내용	34
<표 9> 한·일해협 연안 광역관광 교류협의회 추진 내용	35
<표 10> 한일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주요 일지	38
<표 11> 섬관광정책포럼 공동선언문 내용	41
<표 12>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현황(2002년 7월 현재)	45
<표 13>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내용	48
<표 14> 한일해협권 연안 지역간 관광부문 교류협력 내용 예시	53
<표 15> 제주국제교류협회의 주요 사업내용	67

그림목차

<그림 1>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형태	12
<그림 2> 국제관광협력 네트워크의 제유형	13
<그림 3> 협력·제휴 주체들간의 연계구조	18

I. 서론

1. 문제 제기

지식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구호 속에 지방의 세계화를 의미하는 ‘세방화(glocalization)’ 현상이 국내외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세방화 경향은 지방자치단체에 국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국제화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차원의 문제였던 국제관계도 지역차원에서 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세계적 역설(Global Paradox)의 저자인 존 나이스빗(Jonm, Naisbitt)는 세계속에서 글로벌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최소단위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라고 하였다. 이는 최소단위 혹은 최종단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비중이 국제화시대에 그만큼 중요성을 더해 간다는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환경의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해 온 국제화 사업의 주종은 광역이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자매결연사업, 국제행사, 인적교류사업이다. 반면에 국제업무 전문인력양성, 국제협력 네트워크사업, 다자간 교류협의체 구성, 통상교류협력 등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주로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관광산업에서도 전 세계를 통해 지역이나 다른 국가의 시와의 지방분권된 공동협력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세계 관광시장의 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광시장의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 각국의 개별적인 관광산업 발전방안 못지 않게, 한일해협권 연안 지역간 관광산업의 연계 및 공동 마케팅 전략 등과 같은 지역간 협력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가 1992년부터 한국의 남해안 1시3도(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와 일본의 규슈북부 4현(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야마구치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매년 1회씩 모여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교류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에서의 한·일지역간 관광협력 움직임은 지방정부가 연합체를 통해 극심한 국제경쟁을 이겨내려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추진의 일례이다.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인력, 문화, 통상교류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각종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의 이해증진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윈-윈 게임(win-win game)인 한일해협권 연안 지역간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일해협 연안 지역간 관광부문의 협력체제 구축은 역내 공동번영을 위하여 정부간의 협력보다는 관광상품의 공동개발, 관광관련 종사자의 상호교환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항공사간의 업무교류 증진 등 민간부문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일 해협 연안 8개 시·도·현은 경제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보아 관광협력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의 관광협력 수준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일 해협 연안 지역간 지역관광활성화라는 공동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세계관광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전망과 시나리오를 가지는 한편 지역관광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각종 유·무형 제약조건과 문제를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일해협 연안 양지역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자국 경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21세기 한·일해협 연안 지역간 관광협력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일해협 연안 지역간 공공부문의 협력 활성화와 민간협력 방안의 수립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가. 연구 방법

국내·외 문헌조사를 위주로 한 문헌연구에 한정하였다. 현재 결성되어 있는 다자간 국제교류협의체의 현황을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한·일해협 연안 지역간 국제관광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나. 연구 범위

한국, 일본의 한일해협권 연안 지역의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자간 국제교류협의체에 한정하여 내용을 고찰하였다.

4. 연구 구성

제1장은 서론 부문으로 문제의 제기, 연구 목적,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 구성 등을 다룬다.

제2장은 이론 연구부문으로 국제관광교류협력의 개념, 필요성, 유형 및 범위, 성공조건, 협력 주체, 협력 단계, 협력 한계 등을 다룬다.

제3장은 다자간 자치단체 교류협의체 운영현황부문으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동북아지역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동아시아(환동해)도시 시장회의, 한일해협 연안 시도 현지사 교류회의, ITOP 포럼 등을 다룬다.

제4장은 제주지역의 국제교류 현황부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 대학·

민간·시민단체의 국제교류 현황, 남북교류 현황, 국제교류협력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문제점 등을 다룬다.

제5장은 정책 제언부문으로 기본 방향, 국제관광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제주도의 국제관광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제언 등을 다룬다.

제6장은 결론부문으로 요약 및 향후과제를 다룬다.

II. 이론 연구

1. 국제관광 교류협력의 개념

협력이란 일방의 행위자가 정책조정 과정을 통하여 타방의 실제적인 선호 또는 기대되는 선호에 자신의 행위를 조정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정책조정이란 일방의 정책이 타방에게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줄이기 위하여 자신의 정책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협력은 상충적인 이익과 보완적인 이익이 혼합된 상황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상호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정책조정을 의미하는 바, 이 점에서 쌍방 이익의 완벽한 일치에 따라 의도적인 정책조정이 불필요한 조화(harmony)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은 세계화의 환경을 배경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과 상호교류를 증대하여 지방자치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즉,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 지방재정 자립도 확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삶의 질 개선 등을 목표로 자치단체의 대외 경쟁력을 증가시켜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다.

현재의 국제교류는 급변하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양상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첫째, 지구촌의 경쟁 및 상호의존의 단위 또는 주체가 이제까지의 국가 위주에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등 개별주체로 이동하고 있다. 둘째, 과거에는 국제교류를 정치와 경제영역에서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이제는 그 영역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구나 사회단체들도 지금은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어서 국제화는 우리 사회전체의 각 영역에 매우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4(교류협력의 범위)에서는 교류협력을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교류의 정의를 내려보면 ‘인종·종교·언어·체제·이념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우호, 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 도모 등을 목적으로 관련주체 상호간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대등한 협력관계(cooperative relation)를 말한다.

국제관광교류협력은 ‘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지역간 관광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고 상호 지역간 공동 관광목표 달성을 통해 관련 주체들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노력’ 또는 ‘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 다양한 상호 주체들이 지역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평적 연계망(linkage network)을 형성하고 상호 국제교류와 협력·제휴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협력·제휴관계에 있는 상호 지역간 관광조직의 공생적 발전을 꾀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특히 한일해협 연안 지역의 경우 관광 목적지로서 ‘섬’이라는 많은 제약요건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목적지로서 ‘섬’은 전형적으로 많은 약점에 직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적 환경을 헤쳐나가는데 특별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접근성의 제약, 취약한 생태계, 단선적 경제구조, 다양한 상품 제공의 어려움 등이다.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섬’ 관광은 독특한 상품계획과 더 많은 마케팅 노력이 요구된다. 관광목적지로서 ‘섬’은 모든 내부 핵심 관광조직간의 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조직간 관광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국제관광교류협력은 상호 지역간의 지역관광개발·운영의 노하우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관광투자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외자유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 관광매력도 제고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및 지방의 국제화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는 윈-윈 전략(win-win strategy)이라 할 수 있다.

2. 국제관광 교류협력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문화, 관광, 체육, 인적 및 기타 교류활동은 세계 시장에 대한 정보력과 침투력이 약한 지역내 경제주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시장개척 파견이나 상품전시관 설치·운영 등의 경제교류는 지역경제 주체들의 정보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공헌할 수 있다.

IULA가 1995년 9월 제32차 세계총회에서 지방정부의 국제협력(Municipal International Cooperation, MIC) 쇄신방안을 논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 활동을 하는 주 목적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 이해증진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국가와 국가간의 국제관계가 국가주권의 유지와 확대를 목표로 자칫 이념이나 패권주의에 사로잡히기 쉬운 데 반해, 지방간의 국제교류는 국제대립을 상호이해와 신뢰관계에 의해 완화시킬 수 있다.

국가간의 교류에 있어서는 곧바로 과거 보상이나 무역수지, 군사력이나 방위 등이 문제가 되나, 지방간의 교류에 있어서는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상호간에 군대가 없는 시민끼리이기 때문이다. 지방간의 교류는 국경이나 체제, 이념이나 종교를 넘어 국가와 국가를 연결시키는 바, 그 다리의 역할을 지역도시가 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지방정부간의 교류가 단순한 우호친선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정부간의 교류는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국제교류의 목적은 다음 <표 1>과 같이 볼 수 있다.

<표 1> 국제교류의 목적

구 분	목 적
인식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와 시민의식 개혁 · 주민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국제협력 공감대 형성 · 해외연수·견학·시찰 등을 통한 전문 및 세계적 시야의 확대 등
도시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된 선진행정과 제도 및 우수사례 도입 · 지역간의 상호협력체제 강화 · 도시국제화 기반의 조성 및 내부수용능력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과 경제를 자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모 · 외국인 경제활동 지원 · 우수기술과 해외자본 유치 등
공동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관심사(환경, 보건, 안전 등)협의 및 상호협력 ·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적 연대활동 증대 · 국가외교의 보완 및 실무협의 증진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의 육성 · 외국문화 이해 · 지역사회에 필요한 국제정보의 수집 등

자료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매뉴얼, 2001, p.21.

한편 외국 지방자치단체간 관광관련 이해당사자들간의 협력(collaboration)과 참여(participation),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는 상호 지역의 지역관광 발전의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 요인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제관광 교류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산업의 궁극적 이념은 세계 평화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세기를 전망하면,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사람들의 공동관심의 주제이며, 평화는 이해가 필요하고, 발전은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간 국제관광교류는 각국 국민들간의 평화와 우의의 교량이 되고, 각국 지방정부와 민간 쌍방교류의 연결을 밀접히 해주고, 지역간 공동 번영과 평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국제관광교류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국내·외 문제는 상호 연계성을 지니기 때문에 국제화노력도 타 국가의 국제화노력과 연계, 혹은 협력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 인해 여타 국가의 국제화사업 경험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상호 의존성의 증대 및 심화는 국가간 체계(inter-state system)의 틀에 기초하여 진행되며, 그 내용과 성격도 주로 국가간 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각국의 정부는 대외적으로 증대되는 상호의존성의 전략적 관리,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 그리고 세계경제에서의 적응과 경쟁 등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국제관광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관광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역내 지역간 관광객 송출로 안정적인 관광객 유치 가능하며 관광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셋째, 관광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복합산업이며, 시스템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화사업들이 사실상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같은 국제화사업을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별도로 추진하게 되는 경우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영합게임(zero-sum game)에 지나지 않게 되어 낭비적 사업이 될 소지가 크다.

이런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관광교류협력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광 목적지의 전체 상품은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매우 복잡하다. 상품을 구성하거나 마케팅을 함에 있어 국제간의 협력을 통해 전체 상품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조정(coordinate)하지 않으면 안된다.

넷째, 국제관광교류사업을 통해 내부의 관광산업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고, 관광산업의 국제화를 진행시킬 수 있다.

관광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제공되는 목적지 전체의 이미지 속에서 자사의 관광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면 개별 기업의 마케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관광교류협력의 효과가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제교류의 흐름속에서 전 세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더 이상 국가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서만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머물지 않고 국제무대의 중심에서 그 활동의 폭을 점차 넓히고 영향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방정부간의 국제연대를 모색하는 국제기구가 늘어나면서 이들은 지방정부간의 공동 관심사를 공유하고 상호협력과 발전을 모색하는데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들면 환경보호, 핵발전소, 관광자원, 보건, 안전 등과 같은 비경제적 분야에서 지리적 및 사회·경제적 유사 배경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들간에 직접적으로 혹은 국제연대에 가입해서 국제교류의 물꼬를 트고, 인터넷을 통해 상호관심사에 대한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속에서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더 이상 주변에 머물며, 이를 지켜보는 관망적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처방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적극적인 국제관광교류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인 지방분권화에도 부합하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흐름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지방정부는 물론 주민, 민간단체, 학술연구기관, 기업에서 지역의 수요와 창의에 따른 국제교류정책을 수립하여 나름대로의 지역특성에 맞는 국제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지역주민 각자가 국제화 되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와 연대를 강화해 감으로써 지방자치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커다란 이바지를 하게 된다.

3. 국제관광 교류협력 유형 및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업무는 내향적 국제화와 외향적 국제화로 구분할 수 있다. 내향적 국제화는 자치단체 자체의 내부적 준비 및 역량의 국제수준화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들의 국제적 마인드 제고, 국제화 수용능력 배양, 외국인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 수 있다. 반면 외향적 국제화는 외국과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를 증진시키는 일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유형은 그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시책에 따른 목적으로 구분한 국제교류시책을 보면 지역산업·경제의 활성화, 관광자원, 문화교류, 학술교육교류, 외국인이 생활하기 쉬운 도시만들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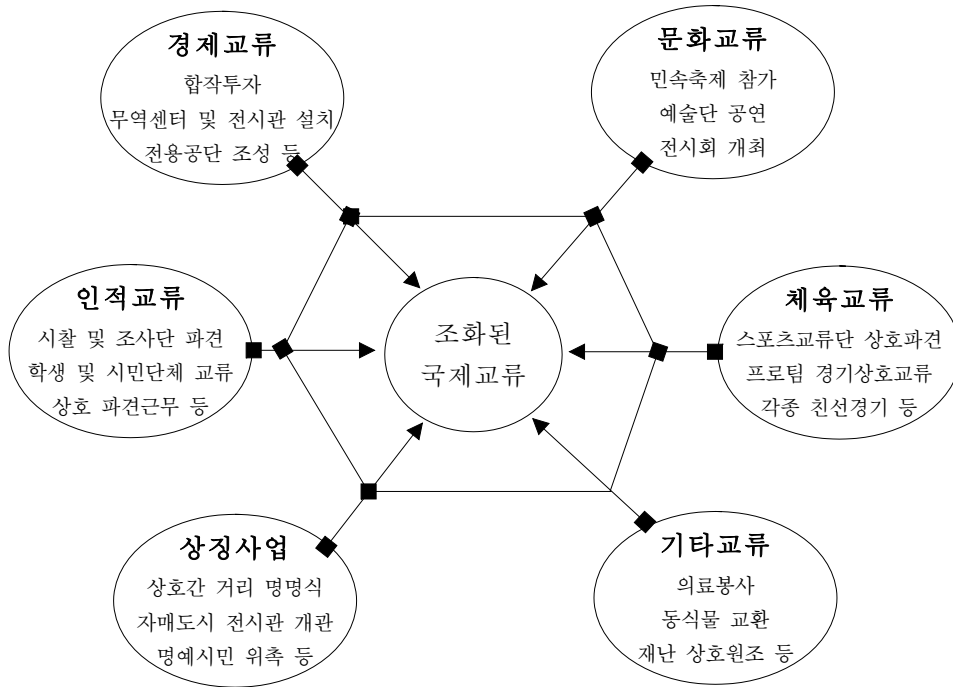
첫째, 자매결연. 지역대 지역간 혹은 기관간의 상호교류의 형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간의 상호이해와 협력 등에 기반을 두는 포괄적인 교류이다. 자매결연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간에서 가장 일반적인 교류형태로서 그 내용은 인적·물적 교류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국제관광협력은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매결연이라는 형태속에서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관광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자매결연(twinning)은 지방정부간 국제협력방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현재까지 관광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제협력내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둘째, 경제통상교류. 일반적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상설전시장 설치, 국제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외국투자유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문화교류. 이는 주로 지역내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교류로써 주민과 가장 밀착된 민간교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문화, 예술, 생활양식 등의 동질성과 이질성 등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넷째, 인력교류. 각 지방정부사이에서 양측의 직원을 교류함으로써 교류인력 능력의 신장과 각국의 행정업무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타국기관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외 체육교류, 상징사업의 추진 등을 국제교류의 일례로 들 수 있다.



<그림 1>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형태

자료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매뉴얼」, 2001, p.25.

각국 지역간 국제교류협력은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활동이나 사업이라면 그 무엇이든 협력·제휴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협력·제휴했을 때의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상호간 발전의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상호간 결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결합함으로써 타 지역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규모의 경제에 의한 행정비용의 감소효과가 나타난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관광교류협력의 유형을 2가지 형태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유형(B2B). 관광지간 전통적 사업 제휴의 양상은 서비스 제공업체를 연계하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호텔과 레스토랑, 낚시 및 유람선 부두의 경우 공동 마케팅과 공동 설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계 효과로 인한 실익은 대단한 것이라 회자된다. <그림 2>라는 육각형 도식은 관광산업의 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를

다양한 관광지를 연계함으로써 실현하길 바라는 여섯 개의 서비스 제공업체끼리의 연계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B2B계획에서 각 지역내 서비스 제공업체는 지방 관광자원을 정렬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한다.

둘째, 새로운 유형(G2G). 전통적인 사업체간의 비즈니스 제휴와 달리 또 다른 도식은 관광진흥을 위한 정부의 연합 사례인 G2G이다. 이번 경우는 민간 서비스 제공업체 대신 정부나 공공기관이 네트워킹 분야를 관리한다. 동심원 세 개는 각각 정부간 다른 통합 정도를 나타낸다. 가장 내부의 원은 공적 업무에서 오직 협력을 위한 정부간 단순한 연계를 나타낸다. 정책결정을 위한 도-성협력위원회(예를 들면 환동해지사성장회의)가 이 원과 유사한 경우이다. 중앙 원은 정부간 관광협력의 통례적 사례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 호텔 연합과 유사한 것들이 지방정부 주도 하에서 회원국내 다양한 관광지와 구경거리를 연계함으로써 관광산업 분야 범위의 경제와 네트워킹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에 동참한다. 가장 외부의 원은 인프라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서비스의 연계를 구현하는 경제통합의 가장 강화된 형태의 경우이다.

<그림 2> 국제관광협력 네트워크의 제유형

자료 : 황원규, “관광진흥을 위한 지역간 협력체제의 구축,” 동아시아 관광진흥을 위한 지방정부간 국제협력 심포지움, 강원도·강원개발연구원, 2000. 9. 6, p.32

한편 지방정부간 관광협력은 쌍무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광부문에서의 지방정부간 쌍무협력은 대부분 자매결연의 형태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자간 협력은 지역협의체의 형태를 띠며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관광교류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상호 지역간 공동문제에 대한 인식과 목표를 공유하여야 하고, 지역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관광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과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국 정부간 관광부문의 협력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객들의 국경간 이동에 저해되는 요인의 파악을 통해 이를 제거하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점차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관광객들의 국경간 이동을 촉진시키고, 관광관련인력의 국제간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의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관광노동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셋째, 자본의 부족으로 국제수준의 관광서비스를 제고하기 어려운 국가의 경우 일정수준의 관광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국 정부들의 이러한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관광산업의 향상에 협력하고 있다.

<표 2> 지방정부간 국제관광협력 분야별 주요협력 내용

협력분야	항 목
정보기술협력	· 관광데이터베이스 구축 · 관광협정체결 · 관광네트워크 연계 · 관광관련기술 교환
인적교류협력	· 관광객 교류 · 관광상품설명회 개최 · 관광투자설명회 개최
상품개발협력	· 지방특산물 교환판매 · 관광협력기구 설치 · 관광교역전 개최 · 관광연계상품 개발
투자개발협력	· 관광자본 투자 · 관광환경·자원보호 · 관광자원개발 · 관광홍보물 제작

자료 : 박기홍, “지방정부의 국제관광협력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p.125.

관광부문에 있어 국제관광교류협력은 지역간 관광산업의 지속적, 장기적 실행 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투자정책, 관광개발계획, 인적자원개발, 환경·문화 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관광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실행으로 첫째, 정보와 경험의 교환. 둘째, 관광정책과 프로그램의 조정 및 조화. 셋째, 마케팅, 훈련, 리서치, 정보보급. 넷째, 역내여행의 간편화. 다섯째, 관광기반시설과 이외의 관련된 여행, 관광시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 인센티브 장려. 여섯째, 개인분야의 참여 장려 및 정부와 개인의 협력 강화. 일곱째, 공통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제적, 지역적 관광쟁점에 대한 공동접근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국제관광 교류협력의 성공조건

국제관광교류협력을 통한 지역간 관광발전 모형이란 ‘산, 학, 관, 민’이라는 모든 지역 관광발전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흥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내부 및 외부간 협력·제휴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업의 복잡화, 규모의 경제화, 연계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협력·제휴 당사자간 공생 발전을 꾀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제관광교류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문제에 대한 인식과 목표를 공유하여야 하고, 지역간 관광조직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관광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과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광조직간 국제관광 교류협력사업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첫째, 관광조직간 국제관광교류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부 관광조직간 협력·제휴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내부 관광조직간 협력이 선행되어야 국내·외 관광조직간 관광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둘째, 국제관광 교류협력 의식의 고양에 있다. 국제관광 교류협력에 관한 이념과 철

학이 확립되어야 한다. 국외 지역간 협력과 제휴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지역 관광산업 발전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지역사회가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국제관광 교류협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공동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동 문제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국제관광 발전을 위한 국외 지역간 상호협약,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지역간 관광조직의 인식 공유와 협력을 위한 의지와 실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피부에 와닿는, 손을 뻗어 미칠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국제관광 교류협력의 ‘습관’을 확립해야 한다. 교류협력에 대한 100가지 이론정립보다 ‘1개의 가시적 실천모형’을 실행으로 옮겨보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다.

넷째, 행정주도에서부터 다양한 주체의 참여형태로 확대되어야 한다. 행정이 주체가 되어 국제관광 교류협력을 시작하고 점차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참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민·관·산·학이 참여한 가칭 ‘관광위원회’ 등과 같은 지역내 협력체를 결성하여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행정사업의 복합화, 총합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 필요한 지원이나 정책을 제안해가는 행정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역내 협의기구에서는 지역내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내 부문별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사업 추진상 갈등과 분쟁 조정, 개발사업간의 집행상 연계와 협력 문제 등도 협의하도록 한다.

여섯째, 국제관광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의 협력·제휴형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역내 지역간 국제관광 교류협력시책 추진비’ 형태의 일정한 재원확보도 중요하다.

일곱째, 다양한 국제적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 개념의 자매결연 등으로 접근하기 곤란한 세계적인 공통현안 등에 대한 광역적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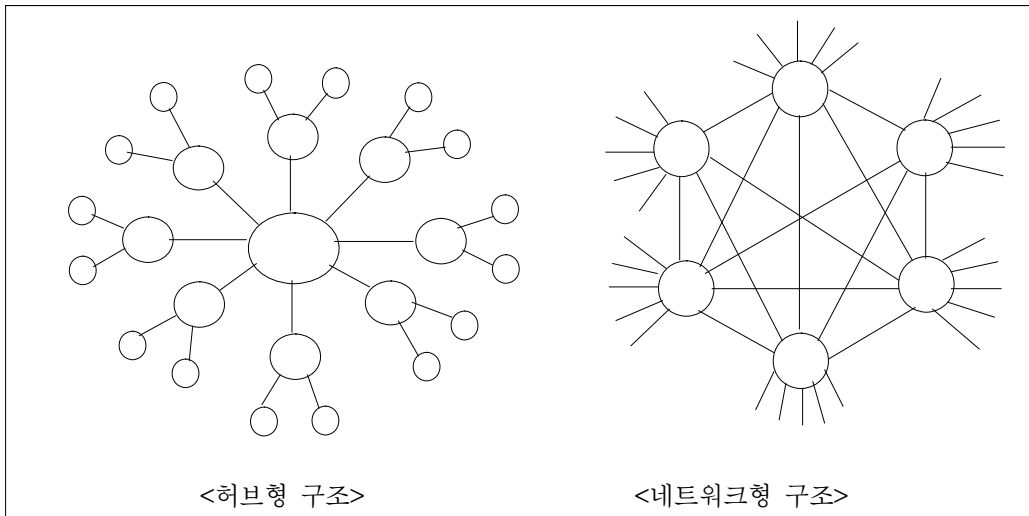
5. 국제관광 교류협력의 협력주체

국제관광교류협력의 추진 주체를 생각할 때, 행정기관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사업 종류에 따라 다양한 추진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한일해협권 연안지역간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관광기업·관광사업자단체(산), 교육기관(학), 행정기관(관), 시민단체(민)가 모두 지역간 협력·제휴의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관이 주체가 되는 경우라면, 다시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사이에 중흥의 제휴축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이들 주체가 자주적으로 협력·제휴를 추진하는 경우나, 아니면 중앙정부나 시·도 등 상급 행정기관이 주도하면서 타율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협력의 방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지역의 광역자치단체 보다는 기초자치단체나 관광기업, 시민단체가 아래로부터의 지역 제휴축을 형성하는 것이 지방분권과 연결되는 이상적인 형태임에는 말할 나위 없다. 특히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는 산·학·관·민의 협조체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의 연합에 의해 형성된 제3섹터 조직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외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휴는 기본적으로 각 관광조직이 가진 의사결정의 자율성, 재정권한의 자율성, 즉 분권적 사회를 그 성립조건으로 한다. 자율적인 권한 없이 협력·제휴의 주체로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제관광교류 ‘협력과 제휴’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국제관광교류협력사업을 주도하는 허브(hub)형 구조보다는 국외 지역간 종적·횡적 연계를 지닌 네트워크(network)형 구조에서 더욱 활성화 되는 것이다.



<그림 3> 협력·제휴 주체들간의 연계구조

자 료 : 이종화, “지역간 협력·제휴를 통한 지역발전 모형,” 국토, 국토연구원, 2000. 2, p.26.

6. 공동 협력사업의 단계적 추진

공동의 협력사업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선별하여 추진한다면 성공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제1단계 : 공동협력의 협정

우선, 국외지역 자치단체장간에 국제관광 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공동의 이해확인공식적 합의에 근거한 공동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역 상호간에 공동 이해의 확인과 교류협력의 다짐은 지방정부 수준의 정책 협력의지가 가시화되고, 후속적인 민간 수준의 상호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2단계 : 지방 엘리트의 상호방문 촉진

지방정부 수준의 합의사항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새로운 협력사업의 대상을 탐색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학계 등 각 분야 엘리트계층의 상호방문 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상호 협력 대상 사업의 발굴과 구체적 추진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1, 2단계의 과정은 관련지역 매스컴의 주목을 많이 끌게 되고 이로 인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제3단계 : 국제관광 교류협의회 설치

외국 지방자치단체장간에 국제관광 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공통의 이해확인과 공식적 합의에 근거한 공동선언에 대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역내 지역간 ‘국제관광교류협의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국제관광교류협의회에서는 국외 지역간 관광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사업 예를들면, 공동 관광마케팅, 관광정보의 교환, 관광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상호 교환 프로그램 개발 등이 논의되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제4단계 : 민간 협력의 활성화

정부차원에서의 국제관광교류는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민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호텔, 여행사, 렌트카, 항공, 해운 등 관광업계는 물론 언론사, 학계, 문화계 등 민간 차원의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지방정부간의 상호지원책을 현시화시키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시범적인 선발분야에서는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긍정적인 협력효과의 파급을 통하여 후속 참여분야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제5단계 : 국제관광 교류협력의 평가

국가간의 협력도 지도자와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하듯이, 국외지역간 국제관광교류 협력의 강도와 내용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교류협력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어느 일방에게만 이익이 된다고 간주될 때 협력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대외협력은 물론 관광목적지 내부의 협력도 필수적 요건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국제관광협력사업의 내용과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 또한 거대해지고 있는 상황일 경우, 한 가지 사업이라도 철저한 평가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매몰비용(sunk cost)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주기마다 전 단계까지의 효과를 진단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관광협력 사업 평가는 사업의 존재는 물론 사업결과에 관한 환류 정보를 확보하게 하며, 그 책임을 규명해 줌으로써 국제관광협력사업의 추진에 내실을 기하게 한다.

7. 국제관광 교류협력의 한계

국가간 관광협력, 지방자치단체간 주요 관광협력 분야별 협력내용에서 보듯이 국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광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이며 상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실익을 가져다주는 면에서 상당한 제약을 지닌다.

첫째, 국가간 관광협력은 근본적으로 회원국간의 경제적 격차, 기술수준의 차이 등 국가 수준에서는 공동의 협력주제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협력의 내용이 단순하고 비경제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실효성이 부족하고 협력에 대한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이나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협력성과를 얻기 힘든 측면도 있다. 지역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민적 호응을 얻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사업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셋째, 기술적 측면에서 국가간 협력,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특히 다자간 협력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회의를 통해서만 협의가 이루어지므로 협력에 대한 합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장기간의 의사결정합

의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관광은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등 기타의 측면에 대한 협력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지방차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러한 측면을 중앙정부차원의 협력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관광교류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국제교류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국제교류 전담조직 설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국제교류 지원정도 등이 국가별로 상이하여, 공동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제교류협력을 관장하는 외교통상부의 경우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시·도에 위촉하여 해당 시·도의 국제교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는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 국제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의 조정력’발휘가 필요하나, 그동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제화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유사한 시책들이 중복되어 국가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

Ⅲ. 다자간 자치단체 교류협의체 운영 현황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관광협력으로는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상호의 공동목적 달성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인접지역간 다자간 협의체¹⁾가 활발히 구성·운영되고 있다.

다자간 자치단체 교류협의체는 그 구성형태에 따라 크게 권역중심의 교류협의체와 지역현안 중심의 교류협의체로 대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자간 자치단체 교류협의체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한일시도지사회의’, ‘동아시아 도시시장회의’,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회의’,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연합’ 등이 구성되어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교류사업은 다자간 자치단체 교류협의체에 한정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1.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가. 설립 목적

1993년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처음 개최된 ‘제1회동북아자치단체회의’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4개국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참여하여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지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1994년 일본의 효고현, 1995년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개최하였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Association)은 1996년 9월 경주에서 4개국 29개 자치단체가 참석하여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의

1) 다자간 협력이란 쌍방이 아닌 3개 이상의 국제자치단체간에 공동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상호간에 조건과 여건이 형성되어야만 추진될 수 있는 특성이 있음.

영속적인 국제기구 설립을 내용으로 연합헌장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자치단체간 국제기구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가 지닌 풍부한 자원과 성장잠재력을 개발하고, 국경없는 세계화와 배타적인 블록화로 다가오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역간의 동반자의식의 제고와 교류협력증진이 요구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동북아지역의 공동협력과제의 개발 및 실천을 위해 창설되었다.

나. 가입 자치단체

동북아자치단체 회원은 1996년 창설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2년 9월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총회에서 북한의 함경북도, 라선직할시, 러시아의 브라트 자치구, 몽골의 셀레긴 아이막이 새로 가입하여 6개국 4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차원의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 3>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회원 현황

국 가	회원국 지방자치단체
한 국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중 국	요녕성, 하남성, 산둥성, 흑룡강성, 영하화족자치구
일 본	아오모리현, 야마가타현, 니가타현, 이사구와현, 도야마현, 후쿠이현, 교토부, 돗토리현, 시마네현, 야마구치현, 효고현
러시아	연해주지방, 하바로프스크지방, 사할린주, 캄차카주, 아무르주, 이르쿠츠크주, 치타주, 사하공화국, 브라트자치구
몽 골	셀레긴아이막

자료 : 이지석,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탄생과 활동,” 지방의 국제화포럼, 제72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2. 12, p.32.

다. 주요 활동

제1회 총회는 1996년 9월에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었고, 지역간의 교류협력 프로젝트 및 발전전략 토의, 동북아지역 자치단체의 영속적인 국제기구설립에 대해 토의하였다. 또한 본 총회에서 연합현장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제2회 총회는 1998년 일본 야마현에서 5개국 25개 자치단체 140여명이 참석하여 헌장 개정안 처리, 분과위원회운영 규정안 마련, 분과위원회 구성, 2000년 총회 개최지를 결정하였다. 연합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제통상, 문화교류, 환경, 방제, 일반 교류 등 5개 분과위원회 설치와 함께 각 회원단체가 설치 중인 각종 기관을 연합으로 통합시켰다.

제3회 총회는 2000년 일본 효고현에서 5개국 27개 자치단체가 참석하여 사무국 고정화 및 북한의 연합참여를 논의하고, 2002년 총회 개최지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로 결정하였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제1회 실무위원회는 1997년 8월에 경주에서 26개 자치단체가 참석하여 경북이 제안한 동북아 비즈니스촉진회의, 제주도가 제안한 관광진흥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제2회 실무위원회는 1999년 7월에 일본 도야마현에서 24개 자치단체가 참석하여 환경분과위원회에 대한 코디네이트 자치단체를 선출하였다. 제3회 실무위원회는 2001년에 효고현에서 열려 회의개최 경비의 일부 분담제와 특정사업에 대한 연합 인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연합회원자치단체 국가를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사업으로 엑스포나 국제박람회의 추진에 대해 토의하였다.

2. 동북아지역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강원도, 닷토리, 길림성, 연해지방의 환동해 4개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활성화와 환동해권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로 발

족되었다.

1994년 11월에 강원도에서 최초로 '환동해권 4개국 지사·성장회의'를 개최한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지사·성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실무분야별 협력기구도 가시화되어 1996년 관광촉진협의회, 1997년에 경제교류협의회 등이 구성되었고, 이외에도 지역특산품 전시회의 정례개최와 공무원의 상호과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가하고 있는 각국 지방정부는 강원도(한국), 돗토리현(일본), 길림성(중국), 연해주(러시아), 중앙도(몽골) 등이다. 몽골 중앙도는 2000년 제7차회의부터,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제8회 회의인 2002년부터 몽골과 북한의 의견을 감안하여 '환동해'를 '동북아시아지역'으로 개칭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로 개칭되었다.

<표 4> 동북아시아 지역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지방정부의 참여 동기

구 분	참여 동기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에 212km의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臨海道였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 지정학적 불이익 때문에 임해공업이 미발달하고 항만을 통한 대양으로의 진출도 뒤떨어졌음 · 따라서 환동해권 경제협력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강원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환동해권 관광 및 물류 중심지 역할을 확보하고자 함
돗토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 연안지역의 낙후성에서 벗어나고자 자본과 기술을 토대로 환동해권에 진출함으로써 러시아 및 중국 동북 3성 등의 자원개발 및 농업협력을 도모함 · 對 중·러의 풍부한 자원개발 내지 그를 배경으로 하는 유망사업 투자의 이니셔티브를 조심스럽게 확보해 보고자 함
길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만강지역개발에의 참여와 환동해권 협의체의 참여를 통해 길림성의 실질적 개방과 동해 진출의 길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과의 경제교류 통로 마련 · 장춘경제기술개발구 및 훈춘변경경제합작구 등에 한국,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연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소련연방의 붕괴와 함께 모스크바 중심의 내국시장에만 의존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일본·한국 등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풍부한 천연자원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의 재건을 도모하고 환태평양 경제협력의 교두보를 구축하고자 함

자료 : 강원개발연구원,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의 발전방안, 1999.

<표 5> 동북아지역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주요 의제

연도	장소	주요 논의사항
1994년 11월 (제1차 회의)	강원도 속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지역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 필요성 인식 · 4개지역 최고책임자의 정례적 만남 추진 · 주요 협력방안의 논의를 위해 4개 지역의 실무부서 책임자 회의 개최
1995년 11월 (제2차 회의)	돛토리현 사이하쿠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지역의 최고책임자가 정례적으로 회담하는 기회를 가질 것을 재 확인 · 4지역간의 문화스포츠 교류를 촉진(1996년 러시아 연해지방, 1997년 돛토리현, 1998년 중국 길림성에서 미술전시회 개최) · 관광 및 무역의 촉진에 노력함과 아울러 「환동해 항로」 개설의 실현을 위해 4지역의 지방정부가 공동의 노력 지속 · 여행업자 등이 참여하는 「환동해 관광촉진협의회」를 설립하고, 각 지역의 관광의 현상,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루트의 설정등에 대해 검토 · 환동해권의 경제적인 체류를 모색하기로 하고, 제1회 4지역 특산품 전시회를 1996년도에는 한국 강원도, 1997년에는 일본국 돛토리현에서 「산인·꿈의항구 박람회」 기간중에 개최, 1998년에는 중국 길림성에서 개최함. · 4지역 상호간의 과학기술, 산업기술협력, 기타 경제협력과 투자의 추진을 위한 정보제공 기회를 만들 것을 촉진 · 4지역의 협조와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 직원의 상호파견 추진, 다양한 민간분야에서의 교류의 촉진 · 기타 지역 참여방안 모색
1996년 11월 (제3차 회의)	강원도 홍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7월에 발족된 「환동해권 관광촉진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 · 4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경제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997년에 돛토리 현에서 개최하는 「산인·꿈의항구 박람회」와 1999년에 강원도에서 개최 예정인 「관광엑스포 강원」에 4개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참가 협력 · 상호 인적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가면서, 학술 연구부문에서의 교류협력을 도모하고, 민간부문의 관광 및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 정례화

자료 : 강원도 홈페이지.

연도	장소	주요 논의사항
1997년 (제4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지방정부 및 몽골 중앙주의 차기 포럼 참가추진 - 북한의 대상 지방정부는 추후 4지역 합의결정 - 북한의 참가의향 타진 및 초청절차는 차기회의 개최지인 길림성에서 주도적 조치 · 『환동해권 경제협의회』 설립 합의 : 규약 확정 · 제2회 관광촉진협의회 : '97. 11월 강원도 개최 『'99 강원도 관광Expo』 에 각 지역이 적극 참가·협력함 · 환동해 교통망 정비, 두만강개발 관련 지방정부 단위 가능한 사항 상호관심과 협력노력 · 4지역간 행정실무, 농림·축산, 보건환경 및 상공업 분야 인적교류 추진 · 포럼 5주년기념 4개지역 소개비디오 편집, 각 지역 방영 및 4개지역 순회 사진전 개최 · 제3회특산품 전시·상담회 개최지 확정 : '98.8월 길림성 · 수질환경분야 공동연구, 정보교환 추진
1998년 8월 (제5차 회의)	길림성 장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 제6회 수녀회의 장소를 「강원도」로 결정(엑스포와 병행개최) · 내 용 : 기초연설, 엑스포참가협약서 서명, 공동발표문 채택 · 환동해권 경제협의회 예비회의('98.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 제1회 환동해권 경제협의회를 강원도 개최 - 속초-나진-훈춘간 항로개설 협력 - 두만강 개발지역을 환동해권의 중심교역지역으로 확대 - 4개지역 정보교환 인터넷망 구축 - 중소기업간의 교류추진 - 환경분야의 교류협력 · 환동해권 상품교역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98.8.21 - 8.27(8일간) - 장 소 : 길림성 장춘시 (국제전람센터) - 참 가 : 500개업체(강원도 26, 중국 429, 일본 45) · 환동해권 미술·사진작품 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98.8.22 - 8.27(7일간) - 장 소 : 길림성 장춘시 길림성박물관

자료 : 강원도 홈페이지.

연도	장소	주요 논의사항
1999년 10월 (제6차 회의)	강원도 속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가 환동해권 지역의 교류 협력 증진 및 공동발전에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4지역의 최고책임자가 정례적으로 만날것을 재인식 · 2000년도 회의는 돛토리현에서 개최하며, 다음 회의부터 몽골 중앙도가 정식으로 가입하기로 합의 ·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 공유, 경제교류의 기반조성 및 민간부문의 기술교류를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21세기 최대의 유망산업인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환동해권 지역뿐이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 지방정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위해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의 창설에 각 지역이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하였음. · 환동해권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의 개설이 지역의 공동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임을 재확인하고, 정기항로 및 항공로의 개설을 위한 공동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지역의 공동과제인 환경보전에 관한 협력방안을 구축하는 한편, 문화, 예술, 스포츠 및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2000년 11월 (제7차 회의)	돛토리현 요나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재해로부터 지역을 지켜나가고, 안전하고 안심하여 살 수 있는 지역을 가꾸기 위해 위기관리대책, 재해 피해의 경감책, 재해로부터의 부흥방안 등에 대하여 긴밀히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합의 · 환동해 정기항로·항공로 개설 협력, 각 지역간의 무역 및 관광 활성화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환동해 교류협력센터 설치 필요성 제기 · 관광정보의 상호교류와 공동홍보의 실천등에 적극적으로 노력, 각 지방정부 공통의 관광자원, 유래, 에피소드 등을 축으로 각 지방정부가 관광매력의 향상, 관심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의 심화를 위해 공동연구를 행하고, 환동해권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기로 합의 - 2002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돛토리현에서 개최되는 전국적 문화이벤트인 「제17회 국민문화제·돛토리 2002」에 각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가·협력하기로 합의 · 환경보전에 대한 협력, 어린이와 청소년에 의한 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의 추진, 대학간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 · 2001년도의 회의를 러시아 연해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환동해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각 지역이 협력하여 북한 지방정부의 참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로 합의

자료 : 강원도 홈페이지.

연도	장소	주요 논의사항
2002년 9월 (제8차 회의)	길림성 연변자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락집행기구 설립 필요성 제기 · 2003년 제9회 회의는 몽골 중앙도에서 개최하며, 금후 회의 명칭은 아래와 같이 하는데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시아 지역 국제교류 및 협력 제X회 지방정부 수뇌회의’ · 경제·무역분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며 환경보호, 관광, 하이테크, 농림수산, 역사, 문화, 체육 및 인재 양성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 · 2003년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강릉 국제관광민속제’와 돛도리현에서 개최되는 제4회 동아시아 지방정부관광포럼(EATOF)에 적극 협력 · 이미 개통된 육해공 항로를 충분히 이용하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항로를 개설할 필요성 제기

자료 : 강원도 홈페이지.

3. 동아시아(환동해)도시 시장회의

가. 개요

1993년 11월 일본 기타큐슈시에서 「환황해 도시간 교류의 가능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1회 회의가 열렸고, 1996년 11월 개항 120주년을 맞이한 부산에서 「환황해권의 공동번영을 위한 각 도시의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이란 주제하에 8대 도시회의가 개최되었다. 1998년 11월에는 중국 따렌시에서 제3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참가도시는 한국의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98.11. 제3회 회의부터 참가), 일본의 기타큐슈시, 시모노세키시, 후쿠오카시, 중국의 칭따오시, 따렌시, 텐진시, 옌타이시 등이다.

나. 회의개최 경과

1993년 11월 환황해 5+1대도시회의 : 기타큐슈시(인천, 기타큐슈, 시모노세

키, 칭따오, 따론펬, 부산은 시장메시지만 전달)

1996년 11월 환황해 8대도시 회의 : 부산광역시(6대도시에 중국의 텐진시, 옌타이시 추가 가입)

1998년 11월 환황해 9대도시회의 개최(따론펬시 개최)

1999년 6월 중국 칭따오(淸島)에서 개최된 실무자회의는 2000년 시장회의 및 공동사업 (연구기관교류, 청소년스포츠교류, 환경보전세미나) 추진방안을 협의하였다. 또 9월 중국 텐진(天津)에서 개최된 연구기관교류세미나에서는 3개국 9개 회원도시간 물류 네트워크 개발과 관광자원 공동개발 및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간 교류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2000년 4월 일본 시모노세키(下關)시에서 개최된 실무자회의는 2000년 시장회의 및 공동사업(연구기관교류, 청소년스포츠교류, 환경보전세미나) 추진방안을 협의하였다. 9월에는 중국 청도에서 청소년 스포츠교류사업으로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2001년 4월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되어, 2002년 동아시아도시 시장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회원도시간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회원국가별 간사(총무)도시 설치에 관한 사항, 기타 회원도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2002년 11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어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지 동북아의 공동번영, 환황해권 10개 도시가 이끌어나가자'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 기구 설립을 위해 연구부회를 설치하고, 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해 환황해 10개 도시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다. 주요 합의사항

환황해 도시간 교류증진을 위해 주요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의운영 : 회의의 지속적인 개최와 상호 연락기관 설치, 참가도시의

확대, 환황해 도시회의 규약 제정

둘째, 행정교류사업 : 공무원 상호파견, 각 도시 관계자료 교환

셋째, 경제교류사업 : 산업기술·환경보전기술 교류, 견본시·경제세미나, 향
만정보교류

넷째, 문예·스포츠 교류사업 : 청소년·스포츠 교류

다섯째, 연구기관 교류 : 연구·정보자료 교환

4. 한일해협권 연안 지역 국제교류

가.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

1) 경과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가 1992년부터 한국의 남해안 1시3도(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와 일본의 규슈북부 4현(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야마구치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매년 1회씩 모여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교류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개최방법은 매년 한일국가별 및 시도현별로 순회하며 개최된다.

<표 6>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 회의개최 경과

개 최 시 기	개 최 도 시	개 최 시 기	개 최 도 시
1992년 8월	제주도	1998년 9월	전라남도
1993년 6월	사가현	1999년 9월	사가현
1994년 9월	부산광역시	2000년 9월	제주도
1995년 8월	나가사키현	2001년 9월	야마구치현
1996년 9월	경상남도	2002년 11월	부산광역시
1997년 9월	후쿠오카현	2003년	나가사키현(예정)

2) 주요 합의사항

주요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의운영. 매년 정기적 개최, 회의운영요강 제정, 공동교류사업의 충실화, 개별교류사업의 적극적 추진, 공동교류사업의 실적평가 및 효율적인 추진, 10주년 기념 사업 추진

둘째, 행정교류. 행정기관 상호간의 교류 및 정보교환

셋째, 경제기술교류. 경제기술교류의 추진, 지역진흥단체교류 지원사업추진, 환경기술교류, 수산관계교류

넷째, 문예·스포츠교류. 청소년 교류, 문화·스포츠 교류추진, 지역 전통공예 교류 사업추진, 주민친선이벤트

다섯째, 학술연구·정보교류. 지역진흥·수산진흥·관광진흥의 정책에 대한 공동연구추진, 각종 지식과 정보교류 등의 추진, 해협권연구기관 협의회 구성 및 공동연구,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교류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표 7> 한일해협 연안 공동 교류사업 추진상황

교류사업	내 용
청소년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교류로 세계화에 부응하는 미래주역 육성 기여 · 한일 고교생 상호교환 전통·문화·역사 등 현장체험을 통하여 상호 이해, 신뢰기반 구축
수산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현안 해결노력을 통한 국제문제 해결 능력 배양 · 어류공동방류 사업을 통한 한일해협 수산자원 증대 등 공동이익 창출 · 어업인 교류 28회·487명, 상호 정보교환으로 선진기술 연수, 정보 습득 등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
환경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현안 해결노력을 통한 국제문제 해결 능력 배양 · 산성비 공동조사, 하천수질 공동조사, 생활하수 오염방지대책 등 환경문제 공동 협조체제 구축

교류사업	내 용
광역 관광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홍보, 민간홍보사절단 양성 · 일본관광성향조사, 의견교환으로 관광상품개발 등 관광활성화 기여 · 관광설명회, 배낭여행, 수학여행단 교류로 관광홍보 및 민간사절단 양성
한일 주민친선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능단체교류로 정보교환 및 벤치마킹 계기 · 민속공연, 아마추어 스포츠 이벤트 등 양지역 주민의 친목도모, 문화의 상호이해, 민간차원의 교류계기
경제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상품 판매촉진단 파견 등 일본수출 시장개척 계기 · 제주특산물 전시, 한일상품 비교견학으로 청정 제주특산물 홍보 · 민간 경제인 교류기반 조성으로 수출증대 효과
지역사회진흥단체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여성간 상호이해 계기 · 한일여성포럼 개최를 통한 선진외식 함양기회 제공
지역전통공예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예기술 상호비교로 신상품 개발 계기 · 공예품 전시 및 기술정보 교환을 통한 우리공예품 재인식 기회 제공
연구기관협의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해협권 연구기관간에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해협권 포럼 발간, 학술세미나 개최 등 공동 관심사를 심도있게 토론

자료 : 제주도,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 발전전략 실천계획(안), 2002, pp.144-145.

3) 공동성명 내용

2000년도 이후의 회의개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9회 교류회의는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21세기 한·일 양 지역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공동 교류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해양 표착,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또한 한일해협권의 상호이해와 공동번영을 촉진한다는 공통의 인식아래 4가지 사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제10회 교류회의는 2001년 9월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8개 시도현의 주요 시책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는 한편 공동교류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 활발한 교류를 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 등에 관해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제11회 교류회의는 2002년 11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었다. 월드컵대회가 한·일 공동으로 개최된 해이자, 「한·일 국민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해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8개 시·도현이 주요시책에 관해 정보교환을 실시하고, 공동교류사업의 성

과 및 이후의 교류 전망과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한·일 8개 시도현을 잇는 관광선의 운항, 한일해협연안지역의 공동과제를 효율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공동연구기구」 설립 등이 논의되었으며, 한일 양국간의 FTA(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

<표 8>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지사 회의 공동성명 내용

연도	개최장소	공동성명 내용
제9회 (2000)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해협연안 지역주민들의 우호친선을 강화하고, 민간교류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1년 제주도에서 주민친선 이벤트로서 '민간 아마추어 스포츠 교류사업' 실시 ·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계기로 한·일해협연안 관광교류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8개시도현의 특징적 관광자원을 패키지화한 광역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협동적·창의적으로 모색하여 적극적 추진 · 기존 공동교류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주민차원의 교류가 폭넓게 전개될 수 있도록 실무회의에서 정기적인 재평가 및 검토를 실시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 · 차기 한일해협연안 지사현회의는 2001년 일본 山口縣에서 개최
제10회 (2001)	야마구치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쌓아 온 8개 시도현의 돈독한 유대관계와 지역차원에서의 교류의 지속적인 중요성 인식 · 한일해협권의 자원인 아름다운 바다를 보전하기 위해 바다의 환경미화에 관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과 같은 사업을 기존 환경기술교류사업 속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 제주평화포럼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에 한일 해협연안 8개 시도현은 인식을 같이 함 · 기존의 공동교류사업에 있어서 민간레벨의 교류가 폭넓게 전개되도록 실무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재평가·검토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 · 금번 회의에서 제안된 지역 전통공예 교류사업의 연장, 광역관광교류사업의 충실 및 경제계의 참가, 여성·청소년 교류, 환경대책 및 복지분야의 교류 등 새로운 제안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검토과제로서 협의 · 차기 한일해협연안 지사현회의는 2002년 한국 부산광역시에서 개최
제11회 (2002)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해협권 공동자원인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한·일 양 지역이 연계하여 2003년부터 3년간 해양환경미화에 관한 캠페인을 실시함. · 한·일 월드컵공동개최를 기념하기 위한 한·일해협청소년축구대회 개최에 대하여 그 개최시기, 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존의 교류사업 안에서 검토함. · 청소년 교류사업과 주민친선이벤트사업 등 기존의 공동교류사업은 큰 성과를 거둔 것을 확인했음.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무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재평가·검토를 실시하고, 보다 실질적·효과적으로 추진함. · 한일해협연안지역 물류 심포지엄의 개최, 한일해협연안지역경제백서(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하여 추후 실무회의에서 현황파악을 포함하여 검토함. · 차기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교류회의는 2003년에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개최

자료 :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 해협권연구, 2001, 2002.

나. 한·일해협 연안 광역관광 교류협의회

1) 설립 목적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 교류회의시 양지역 공동 교류사업으로 합의된 관광교류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2) 주요 협력 내용

한·일해협 연안 광역관광 교류협회의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 관광홍보물 제작·배포, 공동 설명회, 양지역 관광루트 시찰 등에 한정되어 있다.

양 지역간 국제관광교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한·일해협 연안 광역관광 교류협회의 추진 내용

테 마	시행일자	사업개요
제1회 한일해협연안 관광교류회의 및 관광루트 시찰	'95. 3. 20 ~ 3. 25	· 한일해협연안 관광교류회의 창립 · 일본측 협의회 관할지역(후쿠오카, 나가사키, 사가 시찰)
공동 관광홍보물 제작·배포	'95. 12. 27	· 관광지도 제작 : 17만부 · 영·일문 병기 4개 지도 및 관광홍보 자료 수록
공동 관광홍보물 제작·배포	'96. 4. 24 ~ 5. 15	· 39,000부(리후렛 30,000, 가이드북 9,000부) · 16개소(후쿠오카, 나가사키, 사가 등)
한·일해협연안 7개 시도현 관광 리후렛 제작·배포	'96. 10 ~ '97. 7	· 3만부 · 한일공동 편집, 번역, 인쇄
배낭여행 상호 교류	'97. 11. 29 ~ 12. 2, 12. 10~12. 13	· 일본 배낭여행객 방한 : 20명, 4개 시·도 주요관광지 및 설문조사 실시 · 한국 배낭여행객 방일: 18명, 3개현 주요 관광지 시찰 및 설문조사 실시

테 마	시행일자	사업개요
남해안 홍보비디오 제작	'98. 7. 27 ~ '98. 9.5	· BETA, VHS · 400
한·일여행사 교류사업	'98. 11. 11 ~ 11. 28	· 일본측('98. 11. 11~11. 14) : 23명, 경남-제주-전남-부산 시찰 · 한국측('98. 11. 25~11. 28) : 21명, 후쿠오카-나가사키-사가 시찰
일본수학여행 관계자 초청 남해안 시·도관광 팸투어 실시	'00. 8. 21 ~ 8. 25	· 참석 : 수학여행 관계자 29명 · 코스 : 김해→창원→진주→하동→순천→화순→목포→영암→목포→제주→부산→일본
한일여행 관계자 일본 방문	'00. 11. 6 ~ 11 10	· 참석 : 29명(부산 6, 전남 7, 경남 7, 제주 7, 통역 2) · 코스 -북부 : 한국→후쿠오카→야마구치→한국 -남부 : 한국→후쿠오카→나가사키→한국
한국 관광설명회	'01. 5. 29 ~ 6. 1	· 일시 : 8월 29일 · 장소 : 창원호텔 · 참석 : 80명(한국여행사, 언론사 관계자 등) · 내용 : 일본 4개현 VTR상영, 4개현 관광이벤트 등 소개
일반여행자용 관광가이드북 제작	'01. 12.	· 한일해협연안지역 여행 · 한일 8개시도현 주요 관광지, 축제·이벤트, 먹거리, 토산품(광역관광코스 수록)
여행잡지 게재 사업 (2002 공동교류사업)	'02	· 여행잡지 게재사업(광역관광코스 개발) · 잡지명 : 한국 ROAD지 · 게재시기 : 5월호
공동관광설명회 (2002 공동교류사업)	'02. 9 ~ 22	· 한국측 : 2002. 9(일본 도쿄) 2002. 11(한국 서울)

다. 한일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1) 설립 배경 및 목적

1993년 제2회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에서 처음으로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를 창설하기로 제안되었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실무자 회의를 거쳐 1994년 9월 6일 한국 부산광역시에서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창립총회에는 한일 양지역 10개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참석기관은 한국측에서는 부산발전연구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제주대학교 지역사회연구소가 참가하였고, 일본측에서는 九州經濟調査協會, ASIA太平洋Center, 國際東ASIA研究Center, 佐賀經濟調査協會, 長崎經濟研究所, 親和銀行情報調査部の 대표자 및 각 연구기관의 실무자가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일 양지역의 10개 연구기관 대표자는 동협회의의 설립취지 및 규약을 채택하고 교류 협정서를 교환하였다.

설립 목적은 한·일해협권 공동과제에 대한 공동연구와 학술·정보교류 등을 통해, 양지역의 발전과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2) 사업 추진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으로는 국제화시대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개발에 관련된 공동연구, 연구기관간의 학술·정보교류 및 연구원의 상호 파견, 기타 합의에 기초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참여 연구기관

현재 참여 연구기관은 한국 5개 연구기관(제주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일본 6개 연구기관(九州經濟調査協會, ASIA太平洋Center, 國際東ASIA研究Center, 佐賀經濟調査協會, 長崎經濟研究所,

親和銀行情報調査部)이 참여하고 있다.

4) 주요 일지

1994년 9월에 첫 정기총회 및 실무자회의를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하여 규약제정과 교류협정서 교환, 임원선출 등을 하였다.

한일해협 연안지역간의 공동 학술연구 연구지인 해협권 포럼 제1호가 1995년 1월에 발간되었다.

제7회 정기총회는 제주도에서 개최되어, 2001년도부터 해협권포럼에 연구보고서를 통합하여 ‘해협권연구’를 발간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0> 한일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주요 일지

연도	주요 내용
1994. 9	· 정기총회 · 실무자회의(부산발전연구원) - 규약제정 · 교류 협정서 교환, 임원선출, 기념강연
1994. 10	· 실무자회의(九州經濟調査協會) - 협의 안건(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 정보지 발간, 공동연구 분야 협의)
1995. 1	· 해협권 포럼 제1호 발간
1995. 8	· 정기총회 · 실무자회의(九州經濟調査協會) - 임원 선출, 기념강연 - 협의 안건(한일해협권에 있어서 지연산업의 상호교류 촉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의 공동연구수행 결정, 한일해협권연구기관 교류협정서 교환 : 공동연구, 학술정보 교류, 연구원 상호 파견)
1995. 10	· 실무자회의(경남발전연구원) - 협의 안건(공동연구의 기초 연구 결과 발표 및 향후 방침 논의)
1996. 1	· 해협권 포럼 제2호 발간
1996. 3	· 해협권 포럼 제3호 발간
1996. 9	· 정기총회 · 실무자회의(광주 · 전남발전연구원) - 임원선출, 기념강연 - 협의 안건(한일해협권에 있어서 지연산업의 상호교류 촉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의 중간 보고)
1996. 10	· 실무자회의(長崎經濟研究所) - 협의 안건(해협권 포럼 제4, 5호 내용 협의)
1996. 10	· 해협권 포럼 제4호 발간
1997. 4	· 해협권 포럼 제5호 발간

연도	주요 내용
1997.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총회· 실무자회의(長崎經濟研究所) - 임원선출, 기념강연 - 협의 안건 : 한일해협권에 있어서 지연산업의 상호교류 촉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공동연구 최종보고 - 제주발전연구원 정식 회원기관으로 참석
199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협권 포럼 제6호 발간
199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회의(제주발전연구원) - 협의 안건('97~'98년도 공동연구 분야 협의, 통계 데이터에서 본 한일해협권의 내용 협의, 중간보고서 발행시기 및 편집내용 협의)
1998.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해협권의 지역비교 연구 중간보고서 발간
199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협권 포럼 제7호 발간
199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총회· 실무자회의(경남발전연구원) - 임원선출, 기념강연 - 협의안건(한일공동연구내용 중간발표, '98년도 제2회 실무담당자회의 및 '99년도 총회 개최지 ASIA太平洋Center로 결정)
199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회의(ASIA太平洋Center) - 협의안건('98년도 한일공동연구의 진행방법 협의, 해협권 포럼 제8호 편집내용 협의, '99년도 공동연구 방향 협의)
199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협권 포럼 제8호 발간
1999.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해협권의 지역비교 연구 최종보고서 발간
199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총회· 실무자회의(ASIA太平洋Center) - 임원선출 - 협의안건(공동연구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독립 혹은 관심이 있는 연구기관이 공동연구, 해협권 포럼 연1회 발행 결정, 2000년도 회의 개최지로 제주발전연구원으로 결정)
2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협권 포럼 제10호 발간
2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협권 연구 발간
2000.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총회· 실무자회의(제주발전연구원) - 임원선출 및 기념강연 - 협의안건(한일공동연구 내용 중간발표, 2001년도부터 해협권포럼에 연구보고서를 통합하여 해협권 연구를 발간하기로 합의, 2001년도 공동연구 테마 협의, 2001년도 회의 개최지로 國際東ASIA研究Center로 결정)
200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총회· 실무자회의(제주발전연구원) - 임원선출 및 기념강연 - 협의안건(2002년도 공동연구 테마협의, 2002년도 개최지로 부산발전연구원으로 결정) - 연구보고회
200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협권연구 제2호 발간
200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총회· 실무자회의(부산발전연구원) - 임원선출 및 기념강연 - 협의안건(2003년도 공동연구 테마협의, 2003년도 개최지로 佐賀經濟調査協會으로 결정) - 연구보고회

자료 :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 해협권연구, 제2호, 2002.

5. ITOP 포럼

가. 설립 배경 및 목적

섬관광정책포럼(ITOP : Inter-Islands Tourism Policy Forum)의 창설목적은 문화적 공감대, 유사한 관광구조, 같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광지들이 하나로 뭉쳐 미국, 유럽 등 세계 관광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창설시기는 1997년 7월이며, 한국 제주도, 인도네시아 발리, 중국 하이난, 일본 오키나와 등의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창설동기를 몇가지로 간추리면, 첫째, 동아시아 지역의 폭발적 관광잠재력 활용. 둘째, 참여지역간 관광진흥이라는 공동정책 목표 성립. 셋째, 포럼 창설에 따른 기대이익 존재. 넷째, 도서 관광공간 사회·문화적 동질성과 지리적 인접성. 다섯째, 관광구조의 유사성과 잠재적 보완성 등이다.

포럼성격은 다국적 관광정책 협의 및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간 협의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

나. 포럼 기구

포럼기구에는 첫째, 지사·성장회의는 본 포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공동의 정책사항, 예산사항 가맹지역 정부와 국제기관에 대한 권고 및 협약안 제출과 신규 회원가입 등을 승인한다. 둘째, 실무대표자회의는 지사·성장회의에서 결정 및 위임된 사항과 포럼의 실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진행한다. 셋째, 실무급회의는 실무과장급 회의로서 실무업무 추진을 담당한다.

다. 주요 일지

1997년 7월 제주도에서 포럼을 창설한 이후 매년 각 지역을 순회하며,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제5회 포럼은 2001년 10월 15일~18일에 개최되어, 지사·성장회의, 실무대표자회의, ‘해양관광과 섬 번영의 기회’를 주제로 지역의 비전과 해양관광의 발전방안을 모색한 포럼 및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제6회 포럼은 2002년 10월 13일~16일까지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개최되어, 섬들의 상호 축적해온 경험과 기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질 높은 장기체재형관광의 실현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표 11> 섬관광정책포럼 공동선언문 내용

일자	개최지	공동선언문
2001. 10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에서 달성한 합의사항들을 구체화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4개 지역의 대표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포럼사무국을 제주도에 설치한다. · 포럼 참가지역의 범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섬들의 세계 연대를 지향한다. · 포럼 주제에 대하여 정보교환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해 나간다. · 4개 섬은 지혜와 힘을 모아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 제6차 섬관광정책포럼은 2002년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개최한다.
2002. 10	오키나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지역은 생태관광을 포함한 장기체재형관광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연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질서 잡힌 관광개발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연보호에 힘쓰면서 이용·활용을 촉진한다. · 4개 지역의 자연과 예술, 문화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섬 관광의 진흥에 기여시킨다. · 4개 섬은 지금까지의 포럼에서 달성한 합의사항의 실현을 위해 실무자차원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한다. · 제7차 섬관광정책포럼은 2003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발리 주최로 개최한다.

자료 : 제주도, 내부자료, 각년도.

6. 시사점

첫째, 협력내용의 다양성. 국가간 관광협력 내용이 회원국 전체의 공통적 관심사나 현안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지방정부간의 관광협력은 지역의 관점에서 보다 다양한 내용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국제협력은 협력주체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추진되어온 반면 국제관광협력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협력주체가 보다 다원화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다자간협의체 대부분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회의를 통해서만 협의가 이루어지므로 협력에 대한 합의과정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자간 협력사업은 여러 국제자치단체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상호간 이해관계의 공유 또는 공통목적 실현이라는 전제조건 때문에 대상사업 및 의제 선정에 있어 전문가적 입장에서 사전협의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의제 선정에서 무엇보다 선결되는 조치는 협력이 우선 요구되는 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 교류·협력사업으로 제시하여 쌍방간에 합의한 후 타 자치단체의 참여를 모색해 나가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보통 1년 이상의 기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간 관광협력은 지방정부간 관광협력 못지 않게 민간부문의 참여가 중요하나 실질적인 민간부문의 참여는 미흡하다. 향후 추이는 지역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민간기업의 참여 확대가 실질적인 국제관광교류사업의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전담조직 설치. 대부분의 외국지방정부는 국제협력을 위한 전담조직을 지방조직내에 설치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지방정부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다섯째, 민간부문의 재정적 지원. 미국의 경우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민간부문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하며, 영국 지방정부의 경우는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에 재원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지방차원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여섯째, 공동사업 추진과 이로 인한 사업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문제점 진단 및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향후 다자간 자치단체 교류협의체에서는 공동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교류성과가 상호 지역간에 균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지방의 국제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의 조정력’ 발휘가 필요하다. 그동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제화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유사한 시책들이 중복되어 국가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 국가적인 행사나 지방자치단체 공통적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가 총괄적인 조정자 입장에서 지방의 국제화사업을 조정·후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제주지역의 국제교류 현황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

가. 제주도

현재 미국 하와이(Hawaii)주, 인도네시아 발리(Bali)주, 러시아 사할린(Sakhalin)주, 그리고 중국의 하이난(海南)성 등과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다.

한·일 해협연안 지자체간 협력의 파트너로서 후쿠오카(福岡), 사가(佐賀), 나가사키(長崎), 야마구치(山口) 등과 교류하며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회의’ 등의 개최를 통하여 협력해 왔다.

섬관광정책포럼(ITOP forum)의 파트너로서 발리, 하이난 외에 일본 오키나와(沖縄)와도 교류·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대만 타이페이(臺北)시, 호주 태즈메니아시, 일본 시즈오카현, 마셜 아일랜드(Marshall Islands), 그리고 중국의 대련(大連)시 등과는 ‘교류증진합의서’, ‘양해각서’, 또는 ‘우호교류협력합의서’ 등을 교환하고 교류·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나. 제주시

제주시는 일본의 와카야마(和歌山)현 와카야마(和歌山)시, 미국의 라스베이가스(Las Vegas)시, 그리고 중국의 광서장족(廣西壯族) 자치구 꾸이린(桂林)시와 자매결연 내지 우호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다.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일본 사가현 가라츠(唐津)시, 중국 하이난성 삼아(三亞)시, 중국 산둥(山東)성 용구시와 자매결연 내지 우호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라. 북제주군

북제주군은 중국 산둥성 라이저우(萊州) 시, 일본 효고(兵庫)현 산다(三田)시, 미국 샌타로사(Santarosa)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마. 남제주군

남제주군은 일본 와카야마현 나가(那賀) 군, 중국 요령(遼寧)성 흥성(興城)시, 뉴질랜드 파파쿠라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표 12>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현황(2002년 7월 현재)

구 분	해외 자매결연 지역수	자매결연 지역	자매결연일자
제주도	4	해남성(중)	1995.10.6
		발리(인)	1989.6.16
		하와이(미)	1986.11.26
		사할린(러)	1992.1.17
제주시	2	와카야마시(일)	1987.11.12
		계림시(중)	1997.10.29
서귀포시	1	가라쯔시(일)	1994.9.14
북제주군	3	내주시(중)	1995.12.11
		샌타로사시(미)	1996.10.22
		산다시(일)	1997.7.31
남제주군	3	나가군(일)	1987.2.20
		흥성시(중)	1996.11.12
		파파쿠라시(뉴)	1997.3.7

자료 : 제주도 내부자료.

공무원들이 해외 인적자원 교류 내용을 보면 사절단으로서의 참가, 어학연수, 업무 사찰, 관련 회의 참가 등 주로 단발적이고 1회성 행사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에 와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력 향상을 위해 보다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교환과건근무, 공동정책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대학·민간·시민단체의 국제교류 현황

제주대학교는 일본의 도호쿠(Tohoku) 대학, 미국의 퍼듀(Purdue) 대학 등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미국·일본·독일·프랑스·러시아·중국·대만 등 7개국 18개 대학과 본부 차원의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교수 및 학생 교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의 국제교류를 수행하고 있다.

탐라대학교는 일본의 사이타마(埼玉) 여자대학교와 중국의 태원(太原) 이공대학 등 2개국 5개 대학과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제주산업정보대학은 미국의 코네티컷(Connecticut) 주립대학교, 일본의 오사카국제학교를 비롯한 미국·일본·필리핀·뉴질랜드 등 4개국 6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제주한라대학은 중국의 복단(復旦) 대학교, 러시아의 모스크바 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최근까지 미국·호주·일본·중국·러시아 등 5개국 9개 대학과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학술교류를 수행하고 있다.

제주관광대학은 미국의 애शल랜드(Ashland) 대학 및 네바다 주립대학(University of Nevada)을 비롯하여 미국·호주·일본·이태리·중국 등 5개국 7개 대학과 국제학술 교류를 행하고 있다.

라이온즈 클럽, 로타리 클럽, 청년회의소, 한국 보이스카웃 제주연맹 등의 사회단체와 제주관광협회, 제주상공회의소 등의 경제관련 단체, 그리고 한림농협 등이 주로 일본·중국·대만의 민간·사회단체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친선 교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44개 기관·학교·단체에서 11개국 93개 기관·학교·단체와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다.

3. 남북교류 현황

1998년 100톤, 1999년 4,336톤 그리고 2000년 3,000톤 등 도합 7,436톤의 감귤과 2001년 2월 선적된 2,000톤의 당근이 민간단체 주관 하에 북한에 보내졌으며 씨감자 보내기도 조만간 이루어지리라 기대되고 있다.

2000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6박 7일간 남·북한 교차관광의 일환으로 남측대표단 110명이 백두산을 관광했는데 제주도는 정무부지사 포함 7명이 참가한다.

2000년 9월 12~13일 김용순 노동당 비서 일행이 제주를 방문함으로써 향후 제주가 북한 인사들이 찾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2000년 9월 제주에서 남·북한간 국방장관회담(9월25일~26일)과 제3차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어 남측에서는 조성태 국방장관 외 14명과 북한측에서는 김일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부장 외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었고 27~30일 동안에는 남측의 박재규 통일부장관 외 14명과 북측의 전금진 내각책임참사 외 21명의 참석한 장관급회담이 열렸다.

4. 국제교류협력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996년에 제주도와 외국의 주·현·성정부등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도민공감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다.

<표 13>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내용

조항	조항 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와 외국의 주·현·성정부등 자치단체 (이하 "외국자치단체"라 한다) 간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도민공감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자매결연의 대상	자매결연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자치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 자매결연의 제의	<p>① 제주도가 외국자치단체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받아 양지역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p> <p>② 외국으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p> <p>③ 자매결연 상대 외국자치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외교적 특수성
제5조 사전교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친선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자매결연 체결동의	<p>①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외국자치단체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p>
제7조 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p>① 도지사는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교류 추진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승인서, 결연 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자매결연 체결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제8조 문제점 해소등	자매결연 후 교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중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결연의 취소	도지사는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 하다고 판단되었을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5. 국제교류의 문제점

첫째, 자매결연이나 국제교류 활동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2000년 12월 현재 40개국, 392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 중 중국의 116개 지역, 미국의 74개 지역, 일본의 70개 지역으로 이들 3개국이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자매결연 대상이 특정 국가에 한정된 이유는 지리적 근접성을 중시하거나 선진국 위주로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 상대 도시에 대한 산업·경제·문화에 대한 정보나 ‘결연 적합성’ 또는 교류 효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셋째, 결연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상호간의 관심 부족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일부 친선 위주의 교류를 제외하면 교류활동이 단순화된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넷째, 국제교류의 수혜자가 전 지역주민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공무원,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특정 계층에 한정되고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유형을 살펴보면 기관장의 상호 방문, 공무원의 해외연수, 공무원의 상호 파견근무, 의회대표단의 상호 방문, 문화·예술행사의 개최, 체육·청소년 교류 등 친선 도모를 위한 국제교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경제·통상교류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이다.

여섯째, 제주도를 포함하여 우리 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매결연도시의 선정에서부터 교류 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제교류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기업)의 참여와 호응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V. 국제관광교류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제언

1. 기본 방향

국제관광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데는, 먼저 교류협력 의식을 고취시키고 각 주체들의 지역간 교류를 원활히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관광교류협력의 실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한·일해협 연안 지역간 국제관광 교류협력사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한·일해협 연안 지역간 국제관광교류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한·일해협 연안 지역은 상호 대등한 동반자(partner)로 서로 인식하고 존중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일해협 연안 지역간에는 인구와 경제규모, 경제발전 단계, 사회·정치적 여건, 기술발전, 사고방식 등 여러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한·일해협 연안 지역은 지역발전 측면에서 상호 공통의 목표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개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간 여건차이에도 불구하고 상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대등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공동의 목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나가는 접근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관광교류 협력의식을 양성하고 교류협력 주체를 형성해야 한다.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류협력하는 지역주민들끼리 교류하고, 지역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을 깊이 하고, 협력이나 제휴를 추진하려는 의식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일해협 연안 지역의 지자체간 적극적으로 제휴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민들이 교류협력의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간 제휴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내부지향적 관광협력과 외부지향적 관광협력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바람직한 관광협력의 수순은 전자가 후자의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관광협력 사업이 외향적 관광협력사업에 노력을 진력함으로써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여건

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하여 국제관광교류협력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양자간의 조화로운 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상호보완적 국제관광협력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수직적 국제관광협력이 아니라, 수평적 국제관광협력체제를 구축·운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상호 지역간의 수평적 협력을 통해 상호보완적 국제관광협력효과를 거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선택과 집중’ 및 ‘선점과 차별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백화점식 국제관광협력사업 추진전략에서 성과 중심 국제관광협력사업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개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활용가능한 국제관광협력 역량과 사업의 풀을 고려하여 유사한 사업의 중복 투자 등과 같은 비효율적인 국제관광협력사업을 지양하고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며 생산적인 사업을 도모해야 한다.

한일해협권 연안 지역은 관광정보, 관광인력, 투자유치, 관광자원 등의 면에서 상호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일해협권 연안 지역의 관광부문의 장점을 발굴하고 관광경험의 노하우 등을 상호교류하여 지역간 최적 조합(optimal combination)을 도출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생산요소의 조합에 있어서 지역간에 존재하는 상대적 비교우위와 열위(劣位)를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총체적(holistic)이고 시너지(synergy)효과 지향적 국제관광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관광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한·일해협 연안 지역간 관광협력사업이 지방자치단체만의 일이 아니고 관할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민생의 업무로 간주하여 민간과의 공동추진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국제관광협력사업의 결정과정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업의 발굴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아이디어를 수용하게 되면 집행과정에서의 독창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서 국제관광협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지역의 특성을 살려 국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국제인식과 이해

를 제고시키는 한편,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역경제 및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를 설정해 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가운데 추진해 나가는 것 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의적절한 국제교류협력 아젠다나 목표를 설정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통해 이를 실행해 옮긴 후 한단계 한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일곱째, 상생전략(win-win strategy)에 기초한 국제관광협력전략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한다.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 한·일해협 연안 지역간 국제관광협력은 더 이상 정치적 수사학이나 제스처가 아닌 생존전략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한·일해협 연안 지역간 국제관광협력사업이 상징적 의미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투자대비 수익이 커야 함을 전제로 하나 교류협력의 상대에게 손해를 주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남기겠다는 영합 게임(zero-sum game)으로서는 국제관광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관광협력사업은 부가가치 창출 우선의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2. 국제관광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일본의 야마구치,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현과 우리나라 제주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관광담당부서로 구성된 한·일해협 연안 관광교류회의는 매년 관광교류회의 및 공동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양지역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공동 유치사업에 나서고 있다.

한·일해협 연안지역 국제관광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에 장애가 되는 각종 유·무형의 제약조건(constraints)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

려는 접근자세가 필요하다.

한·일해협 연안지역을 둘러싼 미래 전망과 현실적 장애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일해협권 지방정부는 물론 각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토의·개선해 나가는 공동의 광장(forum)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일해협 연안지역을 포괄하는 역내 단위 중장기적 국제관광 비전계획(vision plan)을 구상하고 이를 지방정부간에 구체화시키는 세부 실행프로그램(action program)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표 14> 한일해협권 연안 지역간 관광부문 교류협력 내용 예시

사업명	세부 사업 내용
역내 관광기업간 투자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간 상호인센티브 부여(관세, 조세, 행정지원 등) · 역내·외 관광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역내 기업의 역외 홍보 지원 · 기업간 M&A 촉진
역외시장 대상 공동 마케팅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외 관광시장 대상 공동 패키지관광상품 개발 및 판촉 활동 · 동아시아 연계 크루즈관광상품 개발 · 홍보책자 및 관광투자 안내책자 발간 · 전시박람회 개최
역내관광교류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교역전 및 홍보 판촉물 제작 · 무비자제도 확대, 관광객 신변안전 강화, 출입국절차 간소화 등의 관광객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공동 개발
정보교류 및 조사연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지역 관광정보 DB구축 · 공동 관광조사연구사업 촉진
교육연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종사원 및 관광담당 공무원 상호교환프로그램 운영 · 관광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기업인간 교류 촉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총회 및 포럼 개최 · 관광교역전, 전시박람회 개최 · 관광기업체 명부 발간, 배포 · 전문인력 취업정보 소개

자료 : 한국관광연구원, 한·중·일+아세안 관광 교류 및 협력, 2000, p.81.의 내용을 토대로 재작성

가. 조직 정비 및 기금 조성

1) 가칭 ‘한·일해협연안관광포럼’ 구성

한·일해협 연안 지역간 관광협력은 상호간의 필요성 인식하에 지방자치단체차원의 포괄적인 협력관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우수한 잠재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성과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력에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경제성과 실천성 문제에 민간 분야를 참여시켜 투자와 교류를 유도하여 행정기관간 관광협력이 지니는 한계를 민간 중심의 관광협력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방정부간의 기본적인 연계는 정부가 주도하되, 민간부문(기업, NGO, 개인)의 역할이 돋보이는 부문은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호 보완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한·일해협 연안 지역간 교류협력은 기존의 정부주도 관계로부터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적으로 주도하는 민·관합동체제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한일해협연안관광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 구성된 ‘한·일해협연안광역관광교류협의회’의 경우 관주도의 성격이 강하므로, 한·일 양 지역의 지방관광기구(Regional Tourism Organization), 관광업체, 관광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포럼을 구성하여 민간차원의 실질적인 국제관광교류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고 교류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칭 ‘한일해협연안관광포럼’구성을 통해 향후 제주가 구상하고 있는 ‘아·태지역 관광포럼’의 전 단계적인 역할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2)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의 총실화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지사회의에서 채택된 사업들에 대해 추진방향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동연구 수행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일해협권 연구기관 협의회는 상호 지역간의 역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주제를 선정하여 매년 정기총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주제 선정시 한·일해협 연안 광역관광 교류협의회와 한일해협 연구기관간의 충분한 협의과정이 수반되지 않아 협의회 설립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일해협연안 지사회의와 한·일해협 연안 광역관광 교류협의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공동사업의 발굴과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진단 등의 업무를 한일해협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각 시도현연구원이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일본의 지역국제화협회 등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외국에 대한 전문정보의 교환 및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공동 협력망을 구축·운영하게 하고, 시도현연구원은 이 공동협력망을 통하여 각 시도현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제화업무의 정보제공, 연구기능지원 등을 제공하게 되면 각 시도현 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위한 실제 집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기구가 보완되고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3) 국제관광교류협력발전기금 조성

한일해협 연안 지역의 공동 관광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합의된 공동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공동사업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재원확보가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 실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즉, 양 국가의 상이한 예산운영시스템으로 인해 공동광고 및 공동 설명회 등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공동 기금조성을 통해 공동 사업에 대한 원활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의 시너지 효과도 높일 수 있다.

나. 역외시장 대상 공동 마케팅 및 홍보

1) 역외 관광시장 대상 공동 패키지관광상품 개발 및 판촉 활동

한일해협 연안지역마다의 독특하고 다양한 매력물을 중심으로 설계된 공동 관광상품 개발, 공동 홍보물 제작, 팸투어, 교류전 등을 공동으로 구상하고 계획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공동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의 관광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가칭 ‘한일해협연안관광포럼’을 통해 실현가능한 공동 패키지 상품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수립이 필요하다.

공동 패키지상품 개발의 경우 각 지역을 모두 순회하는 관광상품보다는 양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들어 제주도가 휴양형주거단지에 노년층 관광객을 겨냥한 건강증진관광상품을 기획하고, 사가현의 우레시노온천과 연계한 건강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양국 연계 관광상품 개발시 입국사증 면제제도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공동 마케팅 목표 설정(예를들어 특정지역에 대한 외래관광객 전년대비 몇 % 신장 등), 표적시장 선정, 협력마케팅 강화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동아시아 연계 크루즈관광상품 개발

세계적으로 관광형태가 보다 다양해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새로운 관광대상으로서 해양관광에 대한 잠재수요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크루즈 관광상품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크루즈 관광상품의 경우 스타크루즈사(Starcruises)에서 부산-제주-상해-푸토산-고베-벳부-후쿠오카(여름), 부산-벳부-고베-후쿠오카-제주-부산(봄, 가을), 부산-벳부-고베-후쿠오카-부산(겨울) 등의 상품을 기획했었다.

크루즈 관광상품은 양 지역간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구성 뿐만 아니라 기존 동남아

시아 지역을 연계한 크루즈 관광상품의 개발을 염두해 두고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한일해협 연안 문화탐방’, ‘한중일 연계 문화탐방’ 등 주제에 따른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금강산과 연계한 크루즈 관광상품의 기획도 고려할 수 있다.

크루즈 관광상품의 개발 전제는 한일 해협 연안 지역중에서 크루즈 관광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제반여건(크루르 전용항, 관광지로서의 매력성 등)을 잘 갖추어진 지역이 어디인지 면밀한 조사에 기초하여 상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한일해협연안 방문의 해’ 사업 추진

한일해협연안 지역이 공동으로 ‘한일해협연안 방문의 해’사업을 추진하여 한일 양 지역 관광산업의 현주소에 대한 내부진단과 함께 지금까지의 국제관광교류사업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미비된 점을 보완하여 제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한일해협연안광역관광협의회에서 공동 위원회 구성, 구체적인 시기 선정, 공동 상품 개발, 공동 홍보활동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거쳐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지사회의에서 공동 선언문으로 채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4) 홍보책자 및 관광투자 안내책자 발간

공동 홍보책자의 발간은 양 지역의 교류사업으로 '9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홍보책자의 발간은 역외시장 대상 공동 마케팅을 위한 홍보자료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향후 일반 여행사용 관광가이드북 제작 뿐만 아니라 양 지역에 투자를 원하는 투자가들을 위한 관광투자 안내책자, 양 지역 여행 관련업자들이 관광상품 구성을 할 수 있는 테마별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등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한 홍보책자를 기획하고 발간할 필요가 있다.

다. 정보공유 및 조사연구 사업

1)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광정보의 공유

오늘날 디지털 혁명에 따른 지식정보화는 과거와 다르게 지방의 국제화를 촉진한다. 이는 국제화노력도 시공의 제약을 극복하게 해주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추진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선진국에서는 기존 국제화 노력의 주종을 이루었던 관광안내를 포함한 문화교류나 각종 통상 교류·협력이 물리적으로 추진되기 보다 사이버 상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국제적 연대가 강화되면서 다수의 국제적 또는 지역협력적 기구들이 등장하는데 이들간의 연대가 온라인상에서도 구축, 운영될 수 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보의 축적과 활용인데 정보화사회에서 국내정보와 국제정보체계를 포괄적으로 구축하여 효과적인 국제교류 정책을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전문화된 정보네트워크(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자공간을 통해 국제관광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일해협 연안 지역의 각종 관광정보에 대한 공동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일해협 연안지역의 관광투자 정보, 관광기업정보, 관광객 정보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그것을 관광투자자의 수요와 취향에 맞도록 적절히 제공하거나 2국가의 잠재 관광객들의 취향에 맞도록 적절히 가공해서 제공하는 ‘정보연계 (information link)’체제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호 지역의 관광자원, 관광통계, 관광지도, 관광투자정보 등의 종합적인 관광정책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광정책지원시스템’도 구축하도록 추진한다.

사이버공동체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국제화 전문인력을 증원하기보다는 지역의 전문인력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의 국제적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인터넷은 공간적으로 흩어져 있는 전문가들을 온라인으로 한자리에 묶음으로써 전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일을 보다 쉽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 준다.

2) 관광산업 경험의 상호 공유

일반적으로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거나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된다. 이 때 그것을 직접 경험한 주체로부터 가장 적절한 지식과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 해당 지역의 시행착오 비용은 크게 줄어 들 수 있다.

세계적 행사인 월드컵 행사를 개최한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겪었던 경험, 교훈, 기술(know-how) 전반(준비과정, 예측과 결과, 문제와 장애요인, 파급효과, 성과평가, 경제·사회·국민생활의 변화 등)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축제를 유치하면서 전통문화의 보존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의 전통적인 경험을 한국에 나누어주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세계섬문화축제, 한라문화제 등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경험을 함께 나누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한일해협 연안 양 지역에서의 대표적인 문화축제 개최시 상호간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하여 공연, 전시 등을 한다면 양 지역 주민들의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유의할 것은 양 지역 지자체의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이며 총체적인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문화행사의 국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들어 한 축제에서의 매년 이루어지는 일회적 상호 초청공연에서 나아가, 문화 예술의 전 장르에 걸쳐 연간 다양한 문화행사(예술 분야 뿐 아니라, 민속, 문화산업, 학술회의, 전시 등)를 지속적이며 포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연간 지역문화 정책의 계획 아래에서 각종 초청 및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류와 경험의 나눔은 한일해협 연안 지역간 가장 이해관계가 크고 상호 관심사가 큰 것, 그리고 도민의 정서와 자긍심에 민감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서로간의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바탕으로 상호발전을 이루는 패턴이야말로 한일해협 연안 지역간 공동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3) 공동사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 시행

공동사업 추진과 이로 인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문제점 진단, 개선 등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다. 다자간 자치단체 교류협의체에서 추진하는 국제관광교류사업의 경우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사업이고, 회의를 통해서만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의 발굴, 추진, 평가 등의 체계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각종 공동교류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무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재평가·검토를 실시하기로 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하였으나, 한일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의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류사업에 대한 재평가·검토과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년 주기로 시행되어온 사업에 대해 공동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양 지역의 지자체가 공유하는것이아말로 지식관광(knowledge-based tourism)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공동마케팅 활동의 장애요소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상호간에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 교육연수 사업

1) 관광인적자원의 상호 교류

세계화의 흐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환경에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국제업무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그렇지만 시급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의 하나이다.

더욱이 국제업무라고 하더라도 통상, 문화교류, 혹은 다양한 정책분야별로 부문별 전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양성이 더욱 어렵다.

외국을 방문하거나 국제관련 업무를 단기적으로 체험케 함으로써 실제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훈련의 방법이다.

공무원들이 해외경험을 가지는 것이 국제화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

일본 총무성 및 자치체국제화협회(CLAIR)에서는 '96년부터 매년 각국의 '지방공무원 등 외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력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일본에서의 공무원 대상 교류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한일해협 연안지역간의 공동 합의과정을 거쳐 공무원들의 상호 파견근무를 제도화해야 한다.

한일해협 연안지역 지자체간에 관광정책 및 마케팅 부문에 있어 공동연구를 실행하여 기존 정책을 답습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상호 파견근무를 통해 공무원들의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게끔 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민간 관광기업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무원의 상호파견근무 뿐만 아니라 민간관광기업 종사원들의 상호파견 근무도 추진해야 한다.

2) 대학, 연구소 등의 인적교류강화

한일해협 연안 지역의 학생들이 한 울타리 안에서 공부하고 숙식케 함으로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협력할 줄 하는 장래의 지도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도내 대학과 일본 대학간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교환교수제를 더욱 확대하여 교수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고 관련학과 학생들도 도내에서 2년 일본에서 2년 공부하는 2+2 제도 혹은 3+1제도 등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 학점인정 제도 등을 통해 대학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

우수한 관광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일해협 연안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간의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관광훈련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마련도 필요하다.

연구원과 대학 부설 연구소에 근무하는 인적자원들이 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 해외의 우수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대학·연구소와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단기 혹은 중장기 상호 교환과건근무를 통해 연구수준을 확대해 나가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한일해협권 연구기관의 연구원 교환근무제도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마. 기타 교류사업

민간 주도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제관광협력사업이 시장원리에 의하여 운영되지 않는 한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참여가 저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관광협력사업도 부분적으로나마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저변의 조성이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머지 않은 장래에 동북아시아지역에서도 경제협력을 위한 이 지역 특유의 공동체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예술·문화·체육·무역·환경·에너지·과학기술·지역안보 면에서 빈번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우호와 친선을 새롭게 다져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시민 대 시민간의 교류를 통한 이문화체험, 그리고 거기서 빚어지는 개인과 자기문화의 재발견을 통한 풍요로움의 창조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와 지역기업간 국제통상은 이러한 이상을 뒷받침하고 구체화하는 지원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1) 생활인체육대회 개최

특히, 민간중심의 교류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생활인체육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함이 바람직하다.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우정을 다지기 위해 대회개최 기간중 홈스테이를 실시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홈스테이의 확대는 한일 양 지역의 상이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한다는 측면과 관

광산업의 발전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2) 민간차원의 자매결연 확대

한일 해협 연안지역의 민간단체간 자매결연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단체간의 자매결연 확대는 각 지역의 시민들에게 교류협력 사업의 진행상황과 성과를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의 확대가 양 지역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예를들어 한일해협연안 지역의 관광협회간에 상호 지역간 관광객 송출을 위한 관광 상품 개발, 관광정보 공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워크샵 개최 등 관광교류 증진을 위한 민간차원의 국제교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3) 상호도시 향토음식점 개설

상호도시간에 향토음식점을 개설하여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민간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사례를 들면, 경남 통영시는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사야마(狹山)시에 통영향토음식점을 개설할 계획이다. 통영시는 두 도시간 우의를 다지고 문화교류를 넓히기 위해 통영의 향토음식인 굴, 장어요리, 충무김밥 등의 메뉴를 갖춘 음식점을 사야마시에 개설하기로 했다. 두 도시에 각국의 전통음식점이 운영될 경우 관광객들의 편의는 물론 우의를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일해협 양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문화를 체험할수 있도록, 상호 도시간에 향토음식점의 개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토음식점 개설은 현지 지역주민들에게는 상이한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관광객들에게는 해외여행시 어려움을 겪는 음식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청소년 관광교류 활성화

한일해협 연안 지역간 수학여행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공동 설명회시 양 지역의 교사와 여행업자들의 참여하에 수학여행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행상품 프로그램은 한·일 해협 연안 지역의 생태계와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일해협 연안 지역 청소년들이 각각의 지역을 방문하여 한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주도, 시·군이 자매결연 내지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현·시 등과의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양 지역간의 청소년 수학여행교류를 통해 상호 지역간의 이해증진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5) 항공·해운 등 운송 네트워크 구축

한일해협 연안 지역의 국제관광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구축 측면에서 양 지역을 연계하는 항공·해운 등 다양한 운송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운송 네트워크 구축은 상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뿐만 아니라 양 지역간 통상교역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항공·해운 노선의 마련은 각 지역의 기반시설 여건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정책 제언

제주도의 국제화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절대적인 지지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이 같은 시민의 역할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물론 지역주민, 민간기업, NGO 등에 이르기까지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시

키고, 지방의 국제화사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내적 인프라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일해협연안 지역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내부의 국제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 조직 및 법 정비

1) 제주도 국제교류담당 부서의 위상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있는 추진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과(課)수준의 조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계(係)수준의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조직에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현재 제주도의 국제교류담당은 제주도 기획관리실 국제교류담당부서에서 제주도의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에 있어 지방의 세계화를 의미하는 ‘세방화(glocalization)’현상이 국내외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주도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제교류를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국제교류담당에서 ‘국제교류협력과’로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제주국제교류협회의 설립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는 양국 단체장과 의회대표단의 상호 교환방문,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 교류, 도립문화단체의 공연을 통한 문화소개, 중고생의 홈스테이 등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교류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선 국제교류에 관심이 있는 NGO단체와 주민들이 외국과의 교류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내에 있는 외국인 체류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모일 수 있도록 공식적인 장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단법인 형태의 ‘제주국제교류협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가 국제화의 기치를 내세운 1980년대부터 지방정부와 지역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민·관협력기구인 국제교류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해왔다. 지역국제화협회가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연계장치로 육성되어 민간단체로서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국제교류 정보교환·교류지역 연결프로그램 공동 개발, 민간단체 자매결연 주선 등 민간차원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민간·행정 교류협력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회의 구성도 바람직하나,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시민단체, 민간기업, 학술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는 제주국제교류협회를 설립하여 공동노력을 결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교류협회의 주요 업무는 국제교류에 관련하여 활동중인 민간 NGO단체간 연계 네트워크를 만들고, 교류에 관한 정보제공, 교류활동 지원을 위한 환경정비, 강연회나 연수회의 개최, 홈스테이 교류 실시 등으로, 관주도의 국제통상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민단체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교류협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제화와 NGO단체가 추진하는 국제화를 조화시켜 나가는 조정자 역할을 떠맡게 된다.

<표 15> 제주국제교류협회의 주요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국제교류에 관한 정보 제공 · 정기간행물(한국어) 제공, 뉴스레터(영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등)를 매달 발행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국제교류사업의 기획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에 관한 각종 이벤트 기획 및 시행
민간국제교류단체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가형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지원(경비지원, 사업상담 등)
의식계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의 국제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외국인과 주민과의 상호이해를 돕는 강좌 개설
인재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지도자 육성을 위한 연수세미나 개최 ·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체류외국인에 대한 지원·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외국인에 대한 각종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가이드북 제작 및 배부 · 기업연수생에 대한 어학연수지원, 외국인상담, 국제교류 관련상담 등 실시

자료 : 이시카와 요시노리, “일본 지역국제화협회 운영,” 지방의 국제화포럼, 제71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2. 11, pp.29-30. 수정 작성

3) 국제교류 지원법 개정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국제관광협력을 진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을 제정하여 협력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도 1996년에 제주도와 외국의 주·현·성정부 등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도민공감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다.

향후 제주도에서도 시대적 상황변화에 맞게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조례 2015호, 1996. 5. 22)를 재정비하여 자매결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자간협의체 참가를 통한 국제교류, 국제교류 전담조직 신설 등의 내용을 첨가하여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 제주출신 재외도민 ‘인력풀’ 구축

빠르게 진행되는 블록화 추세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모든 국제교류협력을 도와주고 뒷받침해줄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타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틈새시장’을 노리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때도 지방정부 홀로 타국 지방정부 관련 정보를 획득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민들중 그 지역 정보에 밝은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한 ‘인력풀’구축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제주출신 재외도민중 전문인력의 조인과 협조를 확보해서 국제교류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도가 조사한 우수 인력의 수를 보면 도내 411명, 국내 565명, 국외 50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제주출신 인력풀을 상호 네트워킹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재외도민 전문인력간 네트워킹을 구축할 때, ‘사이버국제화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상에서 정보교환 및 자문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의 협력 강화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보의 축적과 활용인데 정보화사회에서 국내정보와 국제정보체계를 포괄적으로 구축하여 효과적인 국제교류 정책을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전문화된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경우 국제교류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들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방무역관 등 각종 정부 및 민간기관의 인프라를 이용해 타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KOTRA의 경우 지사화 사업을 통해 지방정부 및 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 유치 등에 적절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인 경우 21세기 국제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의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국제화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함을 목적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여 1994년에 설립하였다. 주요 기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환경사업의 지원·알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촉진 해외연수·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제주도의 국제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지역대학 활용

국제교류를 추진하면서 대학이 구비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이용하는 단순 방법과 함께 지방정부나 주민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토록 도와주고 유치된 유학생을 타국 지방정부의 교류에 첨병으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도내 대학에서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제주관광의 홍보사절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 도민들에 대한 의식 교육

1) 국제의식 함양

국제교류라고 할 때 단순히 지역경제인들이 방문하고, 시장 및 공무원들의 교류정도로써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의 사고의 폭을 넓혀 국제문화를 포용하려고 할 때 가능하다.

21세기는 보이지 않는 국제화의 틀 속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문화, 관습, 언어, 사고 등이 글로벌스탠드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에서의 도민 국제의식 함양은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이다.

초·중등 및 대학교육 과정에 평화교육 및 국제화·세계시민교육 관련 과목을 포함시키고, 도내 대학에서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생교육원 등에 국제화·세계 시민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해야 한다.

2) 국제교류협력 정보 제공

국제교류협력 내용과 정보를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주민, 관광사업체, 관광사업자 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초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주민, 관광사업체, 관광사업자 단체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정보중심적 교류활동에 비중을 두고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에서 제시된 공동선언문의 내용,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한·일해협 연안 광역관광 교류협의회에서의 합의 사항 등을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제교류담당부서에서는 교류협의회에서 합의된 사업들에 대해 도내 관광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각 분야별 국제교류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할 시민단체의 발굴 및 지원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자치단체는 기관간의 자매결연 체결 자체보다는 민간교류에 중점을 둔 교류를 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사전교류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민간주도의 교류사업협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가칭 ‘제주국제교류협회’를 설립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VI. 결 론

한일해협권 연안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국제관광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역사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역의 경험과 문제와 지혜를 상호간에 공유하고 나눔으로서 상생과 공존의 운명공동체로서 상호 발전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비록 지방정부간의 교류가 단순한 우호친선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정부간의 교류는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동북아공동체 구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동북아공동체 구성은 다시 지방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한일 양국의 경제성장 및 발전 잠재력을 평가해 볼 때,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서 협력적 공조체제를 구축한다면 상호 혜택과 상승국면(win-win situation)이 주어질 것이 분명하다.

한일해협권 연안 지역이 상호 대등한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각 지역을 둘러싼 미래전망과 현재에 대한 인식 및 장애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적절히 대응해나가는 접근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2001년 11월 이탈리아 토리노시에서 개최된 IULA WEXCOM에서는 2007년 IULA-FMCU 세계총회를 제주도에서 개최기로 결정함으로써 오는 2007년에는 3,000여 명의 세계지방정부 지도자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과는 제주도가 IULA라는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루어 낸 개가로 여타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교류사업에 좋은 귀감이 되리라 여겨진다.

국제교류라고 할 때 단순히 지역경제인들이 방문하고, 시장 및 공무원들의 교류정도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히 관광객 유치노력으로 국제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지역주민들의 사고의 폭을 넓혀 국제문화를 포용하려고 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지역 스스로 폐쇄성을 벗어나 국제화를 통한 내재적 성숙성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는 공무원과 지역상공인 및 주민들의 의식이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느낄 때에만 가능하다.

향후 제주도 차원에서는 현재 기본적으로 미흡한 재정, 인력, 경험, 조직, 정보 등의 기초관광협력기반을 확충하고,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지원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자체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교류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한일해협 연안 지역간 국제관광 교류협력 사업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국제관광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학계에서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고대원, “세계화와 정부의 역할,” 지방의국제화포럼, 제73호,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2003.1.
- 김규원, “개성있는 문화교류 기획해야,” 지방의 국제화포럼, 제59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2001. 11.
- 김영삼, “첨단 정보화의 도시, 아일랜드 에니스와 정보화 시범마을,” 지방의 국제화포럼, 제74호,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2003. 2.
- 김용웅, “광역권 개발에서의 지역간 협력·제휴방향,” 국토연구원, 국토, 2000.2.
- 김익식, “지방의 국제화와 세계의 지방화가 병행되어야,” 지방의 국제화포럼 제73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3. 1.
- 문웅식, “지방기업의 국제화 추진,” 지방의 국제화포럼 제73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3. 1
- 박헌주, “지방의 국제화가 동북아 협조체제의 첩경이다,” 지방의 국제화포럼 제50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1. 2.
- 송희연,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을 통한 지방의 공동발전,” 제4회 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한 한·중·일 국제회의,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2. 2.
- 수 징, “관광협력의 추세-국제적 전망,” 동아시아 관광진흥을 위한 지방정부간 국제협력 심포지엄, 강원도·강원개발연구원, 2000.
- 신창호, “일본의 지역간 협력·제휴를 통한 지역발전 사례,” 국토, 국토연구원, 2000. 2.
- 심대평, “지방외교활동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지방의 국제화포럼, 제76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3. 4.
- 안영훈, “지방의 국제교류협력망 구축을 위한 실천적 방안,” 21세기 지방의 비전과 전략, 충북개발연구원·시도연구원협의회, 2000.
- 안영훈,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언,” 지방의 국제화포럼, 제73호, 한국지방자치

- 단체국제화재단, 2003. 1.
- 양기호,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에 있어서 NGO의 역할,” 지방의 국제화포럼, 제65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2. 5.
- 오성호, “국제업무 전문인력 양성,” 지방의 국제화포럼, 제72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2. 12.
- 이삼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지방의 국제화포럼, 제72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2. 12.
- 이시카와 요시노리, “일본 지역국제화협회 운영,” 해외선진행정현장의 현장을 가다, 지방의 국제화포럼, 제71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2. 11.
- 이윤식, “21세기 지방의 효율적인 국제화 방향,” 지방의 국제화포럼, 제50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1. 2.
- 이윤식, “국제화사업의 추진방향과 과제,” 지방의 국제화포럼, 제72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2. 12.
- 이종화, “지역간 협력·제휴를 통한 지역발전모델,” 국토연구원, 국토, 2000.2.
- 이지석,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탄생과 활동,” 지방의 국제화포럼, 제72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2. 12.
- 임성일, “한국·중국·일본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협력방안,” 제4회 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한 한·중·일 국제회의,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2. 2.
- 유평준, “인터넷 활용과 지방의 국제화 업무,” 지방의 국제화포럼, 제74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3. 2.
- 최범, “지방정부와 주민이 함께하는 국제화,” 지방의 국제화포럼, 제73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3. 1.
- 탄중츠, “지역경제와 지방정부교류에 관하여,” 제4회 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한 한·중·일 국제회의,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2. 2, p.97.

허향진·오상훈, “제주도 관광정책의 방향과 도서관 협력방안,” 제주발전연구원·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아시아 도서관 협력 : 관광과 문화교류」, 1997.

강원개발연구원,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의 발전방안, 1999.

강원도, 국제교류현황자료.

교통개발연구원, 역사문화관광코스의 개발방안, 199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지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방안, 1998.

민족통일연구원,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간 협력방안 연구, 1992.

전남발전연구원, 지방도시의 세계화전략, 1995.

제주도, 동아시아도서관광망(Insular Tourism Network) 구상-타당성 검토와 실천적 전개 방안, 1995.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 2002.

제주도,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 발전전략 실천계획(안), 2002.

제주도,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2002.

제주도, 국제교류 현황 자료, 2002.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형 관광조직체계의 기초모형개발, 2000.

한국관광공사, 동북아 4개국 연계 크루즈관광상품 개발, 1999.

한국관광연구원, 한·중·일+아세안 관광협력에 관한 연구, 2000.

한국관광연구원, 주 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정책 대응방안, 2001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매뉴얼, 2001.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뉴스.

연 구 진		
· 연구책임	송 성 진	제주한라대 관광경영과 교수
	정 승 훈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공동연구	신 동 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한·일해협 연안 지역간 국제관광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인 쇄 일 2002. 12

발 행 일 2002. 12

발 행 인 고 충 석(제주발전연구원장)

발 행 처 제주발전연구원

인 쇄 처 경신인쇄사(☎ 746-2044)

ISBN 89-88021-23-1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出處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나 複製는 禁합니다.